

August
2011. 8

ISSUE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 국제화협력 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 기업탐방 알포스식품(주)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1년 8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윤영우, 임재영, 고석철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임형빈, 김윤아

경제일지 김석필, 박용진, 김범수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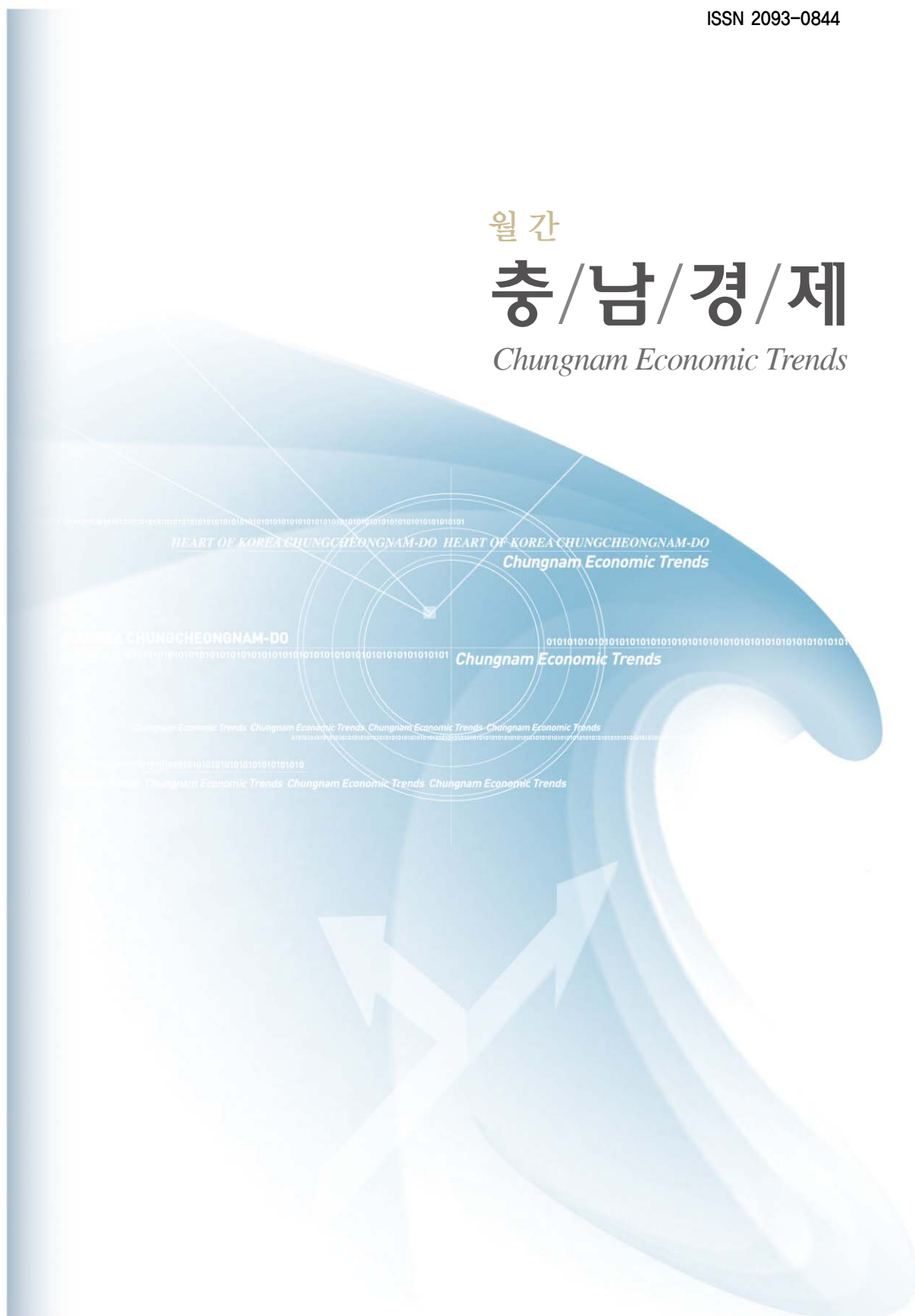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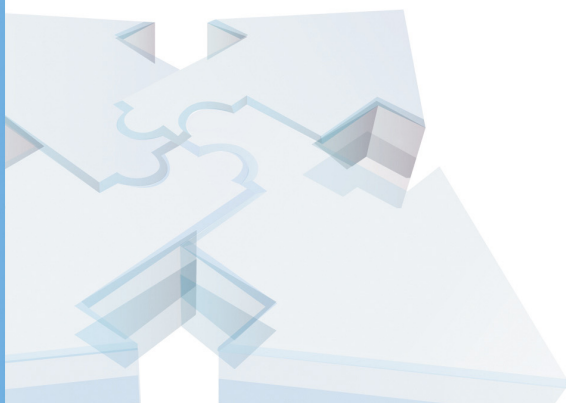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CONTENTS

ISSUE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19
기업탐방	알프스식품(주)	29
경제동향	경제동향 (요약)	3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1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6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1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86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88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신 동 호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세계경제의 신조류 및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대외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Low-Carbon Green Growth)’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천적 수단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지자체 단위의 지방추진계획 작성을 유도함에 따라 충청남도는 국가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2009년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중국에는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아울러 지역경제가 당면한 기후 변화라는 대외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제 수단을 지자체 스스로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수립이 2년여 지난 현 시점에서 계획수립과정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녹색성장 추진실태

1. 비전 및 추진체계

1) 비전 및 목표

충남지역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볼 때 질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충남도의 녹색성장 비전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되는 그린충남(Green Chungnam)’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남 녹색성장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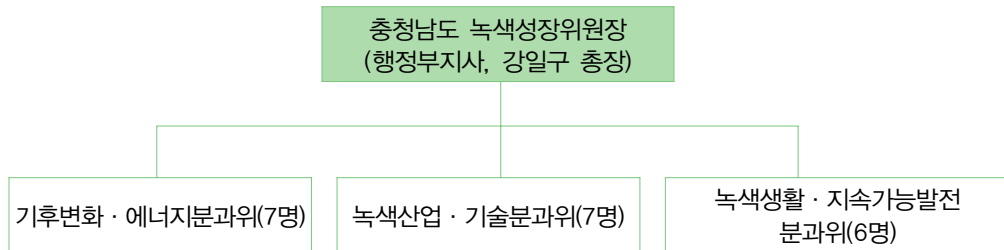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기준 30% 감축을 목표로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까지 증대하고 탄소나무 10억 그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녹색기술·산업부문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4대 권역별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U-헬스케어 Wellness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과 다양한 제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생활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충남도는 녹색성장 3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09~'13년 기간 중 130개 단위사업에 총 201,60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76,7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41개 단위사업에 46,6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78,257억원을 투입하여 47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추진체계

충남도는 지역단위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제 80조(자문기관의설치)」 및 「충청남도녹색성장위원회설립및운영규정제2조(위원회 구성)」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 위촉 위원(21명) 및 당연직 위원(9명)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학계 7명, 연구기관 7명, 관련기관 7명, 시민단체 2명, 산업체 2명, 언론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투자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농업수산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도의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①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 ②녹색산업·기술 분과위, ③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 등 총 3개 분과위를 운영 중이며, 분과위원장의 주요 역할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위임사항에 대한 전문적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충남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현황



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①녹색성장 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 ②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 등 분야별 대책 수립, ③녹색성장 관련 조례 등 법령·제도 마련, ④도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등에 관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 공동 주재를 원칙으로 참석대상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필요시 수시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추진실태

충남도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충남’ 구현을 위해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130개 단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4월 현재, 130개 사업 중 종료된 사업은 13개(10.0%)이며, 추진 중인 사업 101개(77.7%), 시기 미도래 및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16개 사업(12.3%)이 미착수 상태이다.

완료사업은 ①온실가스 감축목표, ②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맞춤형 자율감축, ③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④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⑤재해 사전예방기준 및 시스템 구축, ⑥녹색기술개발 투자전략 마스터 플랜, ⑦정유·석유화학간 고도통합 네트워크 구축, ⑧녹색 중소기업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 ⑨유희 Hi-Tech장비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 ⑩자원순환의 날 제정, ⑪농업인 단체 녹색농촌 푸른 충남 가꾸기, ⑫다양한 스토리 개발 및 녹색 탐방코스 개발, ⑬대전해수욕장 머드 에코로드 사업 등 총 13개이며, 당초 계획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관리 중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대책을 강구 중인 한편, 우수사례 전파 등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

면, 미착수 사업 21건 중 18건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논리개발 등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①화력발전 순산소 기술에 의한 연소기술 도입, ②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③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등 3개 사업은 추진불가 사업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III. 정책과제

1. 계획추진의 장애요인

1) 계획수립과정의 장애요인

계획수립과정에서 장애요인(bottle neck)으로 작용하였던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점이 노정된 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이의 적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에 허용된 시간이 2달 남짓이었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도는 당시 녹색성장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TF팀」을 구성·가동하여 관련실과로부터 취합된 사업을 토대로 초 단기간에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 그룹과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는 실제 녹색성장 업무를 담당해야할 실과중심의 사업발굴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행정력에 지나치게 의존한 계획수립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상당부분 기존사업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참여가 다소 미흡하였다.

둘째, 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산업과 도시부문의 녹색성장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보다는 국비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여부가 우선시되어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은 시장창출을 위해 선제적 투자가 선행되어야하며, 초기비용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자체의 추진역량 보다

는 국비확보 여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었고, 녹색도시·교통부문의 사업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에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미흡한 탓에 2011년 현재, 관련사업 일부가 여건 미성숙 및 현실 부적합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유보되거나 추진불가로 확정된 상태이다.

셋째, 상기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 내 녹색 인프라, 인력 및 자원, 기술수준, 자원 등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전반적인 역량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탓에 그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녹색성장 여건 및 고유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2) 계획추진과정의 장애요인

① 추진체계의 분절화(fragmentation)

그 동안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으나, 2011년 2월부터 환경녹지국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의 일관성이 일정 부분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관부서가 ‘실’ 단위에서 ‘국’ 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추진부서간 상호연계·협력 정도가 취약해질 개연성이 높다.

녹색성장 관련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구 분	업무내용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종합대책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추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관리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	배출권 거래제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 문화확산	녹색성장포럼 및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원육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료 : <http://www.chungnam.net>.

특히, 녹색성장 관련업무가 매우 광범위함을 고려한다면 녹색성장 전담부서가 별도로 조직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녹색성장사업의 조정·총괄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환경녹지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5개년 계획」상의 130개 단위사업 중에서 일정부분의 사업만을 실제 추진할 뿐 나머지 사업은 여타 실국단위에서 분산·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예산 미확보 및 재정력 취약

2009년 수립된 「충남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 5개년 계획」상의 단위사업은 총 130개로 이 중 10.0%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01개 사업(77.7%)은 문제점 위주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대책을 강구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전체사업의 12.3%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은 미착수 상태로 충남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필요논리개발에 고심하는 등 추진 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유보 및 불가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	사 유	비 고
추진 유보사업	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축	타지자체 시범운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립 부문 1개 사업,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부문 12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
	친환경 2차 소각기술 및 물 정화기술 개발	정부계획 미확정	
	녹색기술 공동사업단 구성·운영	"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조성	"	
	녹색기술 시험인증기반 구축	"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추진	정부계획 미확정	
	대학·출연연구소 공동연구센터 설치	추진방향 미확정	
	중소기업 그린정보시스템 구축	도비소요 과다	
	융합녹색 기술지대 조성	정부계획 미확정	
	IT, NT, BT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	
	기업지원 IT 융합서비스	"	
	U-Health Care 건강관리사업 육성	"	
추진 불가사업	탄소금융제 도입	도조정위원회 유보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 총 3개사업
	화력발전 순산소기술에 의한 연소기술도입	실효성 부족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시기 미도래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	민간 자체추진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실과 단위의 자체조사 결과, 130개 단위사업 중 16개 사업을 시기 미도래 및 소요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잠정 유보하거나 추진불가사업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부문 1개 사업과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부문 12개 사업은 타 지자체의 선점, 정부계획 미확정, 과도한 도비 소요, 도 조정위원회의 유보 결정 등을 이유로 추진이 유보되었다. 특히, 정부계획 미확정을 이유로 추진이 유보된 8개 사업은 공공의 선제적 투자 및 막대한 초기투자비용(up-front cost)이 수반되는 산업·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취약한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의 3개 사업은 실효성 부족, 시기 미도래 및 소요예산 부족, 민간주도의 사업임을 이유로 추진불가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계획수립과정상의 문제가 실제 추진과정에서 추진유보 내지는 불가한 사업으로 판명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추진유보 또는 불가로 판정된 대부분의 사업은 향후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R&D분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방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은 요원한 현실이다.

③ 하향식 추진으로 인한 갈등유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없이 자체역량만으로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존 vs. 개발」 간 양측 논리가 첨예한 환경 분야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 갈등사례 #1 : 「녹색뉴딜 금강 살리기」

금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금강 살리기 사업 역시 다양한 유형의 갈등

이 야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간의 갈등사례를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시발된 정치적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초기 단계부터 환경파괴, 사업타당성 및 지속성과 관련한 정부↔충남도·NGO·종교단체간 갈등, 지역개발 이익(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충남도↔공주시·부여군간 갈등, 금강살리기 ‘찬성’ 주민↔‘반대’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사업추진(공사) 과정에서는 토석채취 및 준설토 처리, 사업보상, 비산먼지·소음·진동·안전문제를 둘러싼 정부↔주민간 갈등, 그리고 생태계 파괴·퇴적토 수질악화·문화재 훼손 등과 관련한 정부↔NGO(환경단체·시민단체)간 갈등, 금강 하구둑 개방을 둘러싼 충남도(서천군)↔전북(군산시)간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처럼 「금강 살리기」를 둘러싸고 정부(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간, 정부(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주민(NGO)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표출되었고 나아가 이해 당사자 상호간 비난·소송이 난무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한 공사 강행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 볼 수 있다.

「금강 살리기」를 둘러싼 행위주체별 주요갈등 유형

유 형		대표적 사례
정부간	수직적	금강 물막이 공사를 둘러싼 정부↔서천군 갈등
		사업타당성 및 지속성에 대한 정부↔충남도 갈등
	수평적	금강 하구둑을 둘러싼 서천군↔군산시 갈등
		부여보사업 홍보 관련 선관위↔국토부, 여당↔야당, 자치단체장간 갈등
정부↔주민	정부↔주민	사업보상 관련 정부↔주민 갈등
		청양군 칠갑산 천장호 뚝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갈등
		농지소멸보상, 준설토 및 토석채취허가, 보설치에 따른 정부↔주민 갈등
		금강살리기 사업공사 관련 공주시↔주민 갈등
		금강살리기 충남도 ‘반대’ vs. 주민 ‘찬성’
	정부↔NGO	단양썩부쟁이 멸종, 오염 퇴적토 수질악화 관련 정부↔환경단체 갈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부↔시민단체, 종교단체 갈등 백제문화유적 훼손을 둘러싼 시민단체 비판제기

◦ 갈등사례 #2 :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예전부터 가로림만 지역은 지형적 조건상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협약체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기 도래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당제 도입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민심이 찬반으로 나뉘어 양측의 대립상황이 지역의 ‘핫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주민 갈등



조력발전소 건설이 급물살을 타기 이전에는 조력발전소가 전력생산과 연육교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 당초 서산시는 ‘관광객들이 태안으로 가기 위한 통과지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반면, 태안군은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지는 등 양 지역간에 상반된 기대가 상존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사업초기단계의 갈등구도는 사업주체인 서부발전과 환경단체간 대립이었으나, 조력발전소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조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보다 복잡한 갈등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에 생계터전 지속과 보상을 둘러싼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구조가 더욱 복잡·침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서부발전, 태안 및 서산시 지역민 일부 등인 반면, 서산시, 환경단체, 태안 및 서산시 지역민 일부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여기에 태안군은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충남도는 동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갈등해소를 위해 뚜렷한 조정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및 갈등 경위

일 시	추진내용
1980.1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경제장관 회의)
2004.12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2005.2	교토의정서 발효
2006.3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착수
2007.3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2007.8	서산시 공식반대 입장발표 및 백지화 건의문 발송
2007.9	가로림 조력발전(주) 설립
2007.9	반대투쟁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백지화서명 운동추진
2007.10	해양수산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입장 표명
2009.4	가로림만 지키기 서산태안 범시민연대연합회 및 생활정치 서산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2009.7	건설반대 진정서 제출 및 조기건설 탄원서 제출
2010.5	서산태안어촌계 어민 1,000명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총궐기대회 개최
2010.7	서부발전사장 등 5명 도지사 면담
2010.8	반대주민 대표 13명 도지사 면담
2010.12	충청남도 주관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 개최
2010.12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

2. 지역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1) 지자체 개선과제

① 「충남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 5개년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녹색성장 단위사업을 통해 산출된 감축량을 토대로 설정된 것이 아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 저감)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수단(단위사업)별 감축량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감축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충남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 5개년 계획」에 수록된 단위사업 중 기 완료된 13개 사업과 추진불가로 확정된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114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획수립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노정하였던 현실적인 제 한계들을 보완해야 개별 단위사업들의 실효성 담보와 더불어 나아가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의 현실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여건 및 잠재력, 보유자원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발굴이 요구된다.

② 지역단위(area-based)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현재, 녹색성장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 의해 기획·추진되고, 지역으로 하달된 사업은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 각 실과단위에서 집행되는 이른바 다원화된 정책전달체계(delivery system)와 하향식 계획(top-down planning)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직 또는 기구가 단일의 회계시스템 하에서 녹색성장사업을 기획·조정·집행하는 이른 바 완전한 통합(full integration)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행 법·제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녹색성장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단위 사업을 조정·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책목표별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역(시군)별 안배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우선순위 사업이 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녹색성장 거버넌스 체계 개선

충남도는 원활한 녹색성장을 위해 「충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추진단」, 「충남 미래포럼」 등을 구성하였으나 상호연계 없이 제 각각 분산·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호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매개로 지역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후친화형 산업구조로 전환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시기 도래와 관련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인 비중(82.1%)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즉,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기후친화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산업의 녹색화(greening)가 중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철강 및 정유화학업종이 충남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만큼 동 분야의 녹색혁신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당진지역에는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유니온 스틸 등 국내 주요 메이저 철강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서산 대산항과 인접하여 삼성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등 정유·화학업체가 다수 입지해 있는 만큼 이들 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약형 생산설비 구축 및 친환경 공정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 개선과제

① 예산이양 및 포괄보조 지원방식 도입적용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처간 정책에 대한 조정·총괄기능이 부재하여 지원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 내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당초 정해진 바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복적 투자를 야기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문에 선 투자되지 않는 이른 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부처별 예산이 지역단위에서 배분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원칙보다는 부처사업 위주 또는 지역안배를 우선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배분 및 집행과정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예산의 일정비율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보조방식을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도 적용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우선 순위 사업에 관련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녹색성장과 여타 정책간 충돌 및 갈등완화 장치마련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정의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나아가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사강행이 가져올 많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사업을 둘러싼 지역간·구성원간 갈등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앞서 정책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부처간 조정·조율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유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보다는 다양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 지역단위에서 제대로 투영되려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계획(top-down planning)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양 또는 포괄보조를 통한 예산집행의 재량권과 더불어 지방정부 주도의 상향식 계획(bottom-up planning)을 지향토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 기 수립된 지방 녹색성장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노정하였던 현실적인 제 한계들을 보완하는 한편, 개별사업의 현실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여건 및 잠재력, 보유자원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전제로 수정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④ 정책전달체계(delivery system) 개선

원활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기획·조정·총괄기능의 일원화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토대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로 국밥’식의 정책전달체계는 지방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 온 선순환적 경제성장의 전제는 관련부처의 조화가 선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현재, 녹색성장 실무는 ‘녹색’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성장’을 도모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당초 ‘녹색’과 ‘성장’을 ‘상생의 원리’로 이끌겠다는 원래 의도와 달리 주무 부처 2곳이 서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추진 과정에서 양 부처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바, 이러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정책의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부와 지경부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관련된 모든 부처를 총망라하는 정책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한 정책전달체계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⑤ 예산확보

정부는 '09~'13년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56.9조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8.6조원,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를 위해 27.9조원을 책정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해 총 10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으므로 녹색성장을 위한 특별세원 발굴을 고려할만하다. 특히, 공공의 선제적 투자 없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시장창출 및 산업육성 등 녹색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공동과제(제도개선 방안)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 지역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易地思之’에 입각한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이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사업선정기준을 ‘국비확보 여부’가 아닌 ‘현실 적합성 및 지역 역량 부합여부’에 중점을 두고 기존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디자인하고 ‘정치적·지역

적 역학관계에 의한 지역안배' 기준으로 사업을 배분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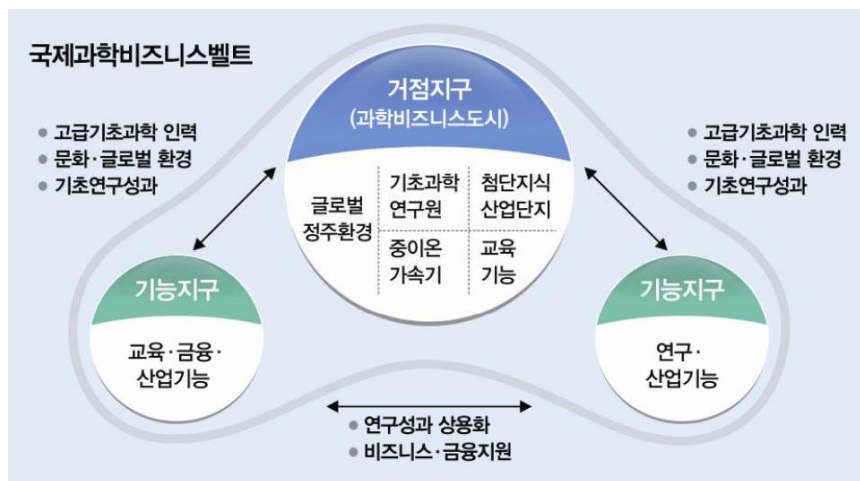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해당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경부는 각 시도의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방식과 같이 실링제로 운영하여 지방중심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요청한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이른바 'Bottom-up 방식'의 예산 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요

- 정부는 지난 5월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에 대해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을 뒷받침하는 기능지구로는 대덕특구와 인접해 있는 천안시, 연기군(세종시), 청원군(오송·오창)를 선정하였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상업화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임
 - 국제(국제적인 도시환경, International) + 과학(기초과학연구, Science) + 비즈니스(응용기술사업화, Business) 벨트(Belt) : ISBB



- 과학벨트의 중요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은 50개 연구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25개는 대덕특구 및 카이스트 연합캠퍼스에 배치하고, 나머지 25개는 광주, 경북권 등에 분산 배치할 예정임
- 또한 중요과학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개념설계를 마친 후 올 연말쯤 상세설계에 들어가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임
- 이러한 과학벨트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는 5.2조원으로 당초 계획(3.5조원)에 비해 1.7조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점·기능지구 2.3조원, 대구·울산·포항 연구단에 1.5조원, 광주 연구단에 0.6조원, 전국의 대학·출연(연) 등에 설치되는 외부 연구단에 0.8조원을 배정하여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임

과학벨트 부문별 · 연차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7년	총계
계	100	4,100	7,900	39,700	51,800
기초연구지원 (연구단, 대형시설·장비, 해외기관 유치 등)	56	3,200	4,200	28,000	35,456
연구기반 조성 (본원·캠퍼스 건설, 정주여건 조성 등)	-	400	2,300	6,000	8,700
중이온가속기 구축	44	460	1,000	3,100	4,60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및 공동 R&D 등)	-	40	400	2,600	3,040

- 정부는 이러한 과학벨트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에 도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이공계 인력의 고급일자리 창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유입 촉진, 대학 및 출연연과의 새로운 혁신모델 창출과 win-win 전략으로 상승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과학벨트 사업은 그동안의 응용연구중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과학기술분야 대선공약으로 처음 이슈화되었음
-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11년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며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음
- 이후 과학벨트 사업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132개 시·군의 부지조사를 통해 1차 후보지 10개 시·군을 선정한 후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 및 특별법 상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최종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를 도출하였음
- 이와 같이 전국에 대한 과학기술역량과 정주환경, 국내외 접근성 및 부지확보 용이성 등의 검토를 거쳐 거점지구로 대전시(신동·둔곡지구), 기능지구로 천안, 연기, 청원군을 선정하였고, 소요예산 5.2조원으로 확대하였음
- 이후 과학벨트추진단은 2011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에 대한 최종 지정·고시를 할 예정임
 - 기본계획에는 거점지구의 상세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공간 조성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거점기능지구 및 기초과학(연) 캠퍼스 소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별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분담 방안 제시
 - 또한 거점·기능지구에 대한 지구별 구체적 위치와 면적, 개발사업 시행자 등을 고시할 예정임(국토해양부)
-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기초과학(연) 원장 채용과 2012년 초까지 정관, 직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연구원을 개원할 예정임

과학벨트 추진계획



자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홈페이지.

- 2012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 기존 개발계획 등의 변경 등을 통해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3.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 과학벨트 사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최초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를 위해 법·제도적인 시스템, 거점·기능지구(캠퍼스 포함)와 기존 출연연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의 전략적·단계적 추진 등이 필요

-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없을 경우 과학벨트 사업은 10년, 20년 후 현재의 대덕연구단지와 큰 차별성이 없는 과학장비구축 및 연구원설립에 그칠 우려가 있음

과학벨트 사업의 단계적 추진

- 과학벨트 사업은 많은 정치적 과정과 논란을 겪으며 상당기간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과학벨트 종합계획(2009.1)과 중이온가속기 등은 총괄적인 계획수립과 전체적인 개념설계는 되었지만, 예산의 증액, 캠퍼스의 신설 등의 사업추진상황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연구인력 수급, 인프라 조성 등의 실행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수월성*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단 구성도 지역, 분야간 이견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에 있어 정해진 지역에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가 아닌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단을 지정하는 방식
- 따라서 연구단의 출범이 다소 늦더라도 기초과학연구원뿐 아니라 관련 계획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독일의 막스플랑크, 일본의 리켄 등 선진연구기관의 특성과 철학을 파악하고 우리의 연구현실을 고려해 연구 수행체계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환경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 검토

- 현재의 기초과학연구원은 교과부의 예산지원 및 법적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기초과학연구원은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지시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연구인력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기존 출연연구원과는 달리 연구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포괄예산 등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프로젝트의 기본 모델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함
-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 3조5,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또한 세계적인 과학중심지로 조성키 위해 연구인프라, 정주여건, 기타 환경에 대한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도마련이 필요

기존 연구조직과의 교류협력 강화 및 통합네트워크화

- 과학벨트 사업으로 인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현재의 응용-융합 R&D에서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써 향후 세계적인 R&D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것임
-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기존 출연연과 주요 연구단(Site-lab)의 소재 예정지인 광주, 대구의 경우 3개 연구개발특구와 기능적·공간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의 중추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대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와 대구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 GIST (광주과학기술원)의 명확한 역할구분과 통합적 네트워크 필요
- 또한, 현재 기초과학은 대학이 주도하고 있고, 원천기술 개발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업화하는 기업의 연계를 고려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역할 분담과 정립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와 민간(기업)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구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과학기술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존 연구조직과의 통합적인 교류네트워크 창구가 필요

중앙부처간의 지역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과는 별도로 지경부, 국토부 등의 R&D 및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과학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기술이전과 사업화 기능은 부처의 경계를 넘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특구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만큼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대덕특구본부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추진계획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육성, 광역경제권 인적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있어 충청권은 거점·기능지구로 사업의 추진 대상지역이 동일한 만큼 과학벨트 사업과 중앙정부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적 추진이 필요
- 또한, 과학벨트는 행정구역상 단일 행정구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넘어 통합적인 과학기술 및 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다각화

- 과학벨트는 기초과학기술부문의 연구개발 활동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상업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생산의 형태를 지양하고 있어, 이를 위해 90%의 연구개발 활동과 10%의 파일럿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파일럿 생산체계의 구축이 되는 기능지역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현재의 지원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별법에 있어서도 기능지구는 교육, 금융, 산업기능 등을 통해 거점지구와 공동연구, 인력교류, 사업화 등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 현재의 R&D, 인력양

성 외에 기술사업화 및 상업화를 위한 파일럿 생산시스템을 갖춘 산업집적지 형태의 인프라 조성이 필요

- 또한, 지자체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산업생산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첨단산업집적지의 조성과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형 미래성장동력 연구 추진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 과학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외 과학연구자들이 생활하는데 최적의 주거, 교육, 문화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함
 - 초광역통신망, 항공 및 도로 접근성 강화와 외국인 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컨벤션시설 확대 등의 하드인프라 구축이 필요
- 마지막으로 하드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도전적 연구분위기 및 창조와 혁신의 도시문화 창출과 확산에 주력해야 함

참고문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2011.5.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2009.1.13.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기획단 홈페이지(<http://www.isbb.go.kr>).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2011. 4.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글로벌 육가공업체로 도약하는 알프스식품(주)

- 알프스식품(www.alpsfood.co.kr) -

다수의 국내 육가공 대기업 제품을 제조할 정도로 검증된 기업. 창업 17년 만에 매출 40배를 향하는 기업. 적극적인 직원 복지를 펼치며 상생의 노사문화 모델로 평가받는 기업. 창업한 지 불과 7년 만에 지역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업. 바로 충남 서천군 종천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알프스식품'의 모습이다. 알프스식품은 이제 대기업 제품을 OEM 생산하는 것을 넘어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일본 수출을 시작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며 서천은 물론, 충남의 대표 식품제조업체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검증된 향토기업

“무엇보다 안전과 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많이 개선됐지만, 앞으로도 불량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장맛비와 습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7월 말 아침, 이제 막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직원들에게 김우진 상무는 이렇게 당부했다.



알프스식품(주)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알프스식품 개요

창업	1994년 11월
대표	김재현
주소	충남 서천군 중천면 석촌리 416-29
주요사업	육가공(햄류, 캔류, 소시지류, 직화구이), 연육(어육소시지) 등
직원	180명
매출	334억원(2010년)

직원들은 김 상무의 당부에 모두 한 목소리로 ‘예’를 외친 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날만도 하지만 알프스식품 직원들의 표정은 밝고 가벼웠다. 사실 직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량을 맞추느라 무척 바쁘다.

알프스식품은 창업 3년 만인 1996년 대 상(주)과 삼호F&G(주)를 시작으로, 1998년부터는 농협유통(주), 2001년부터는 오양수산(주), 2002년부터는 대림수산(주), 2006년부터는 (주)진주햄과 CJ푸드시스템(주), 2010년부터는 (주)롯데햄까지 국내 육가공 대기업의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 품목도 기업별로 한두 가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모크햄과 소시지, 베이컨, 떡갈비, 직화구이까지 다양하다.

알프스식품 김재현(60) 대표는 “이렇게 많은 대기업의 여러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우리 밖에 없다”며 “그만큼 우리의 생산능력과 관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전 직원이 이런 자긍심으로 톨툴 뭉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프스식품이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육가공 제품들

육가공 대기업에서 공장장까지 지낸 김 대표는 1994년 서천에서 알프스식품을 설립했다. 자신의 경험을 밑천으로 사업에 뛰어든 김 대표는 2001년 ISO9001 인증서(영국)를 취득한데 이어 2002년 7월에는 충남도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콩을 원료로 한 햄과 소시지 타입의 두류가공품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고, 2005년에는 농림부로부터 HACCP(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지정서를 취득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우수중소기업상(충남도), 2006년에는 노사문화우수기업(노동부), 이노

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벤처기업(중소기업청·술신용보증기금)으로 각각 지정되고, 지난해에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 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기업 경쟁력을 확실히 검증받았다.

김재현 대표는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 3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6배인 180명이 일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프스식품의 경쟁력은 매출액이라는 결과를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매출은 10억으로, 신생 기업 치고는 좋은 성적이었지만, 이후 신장세는 더 눈부시다. 2003년 135억 원을 달성한데 이어 2005년에는 156억 원, 2006년에는 170억 원, 2008년에는 264억 원, 2009년에는 284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334억 원을 올렸고, 올해는 400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세금도 많아져 부담이 커지지만, 알프스식품은 2005년 모범 성실납세자상(국세청), 조세의 날 모범납세자상(재정경제부장관)을 수상하는 등 정도(正道)를 걷는 모범기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글로벌 육가공업체로 도약

알프스식품은 육가공 메이저기업의 OEM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다. 김 대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햄이라는 컨셉으로 ‘파인웰’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며 “좋은(Fine)”과 “웰빙(Well-being)”을 합성한 말로 햄 전문가가 언제나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통 유로피안 햄인 ‘본센’도 개발했다”고 했다.

알프스식품은 지난 7월 새로운 도전에 첫 걸음을 뒀다. 일본 코스모스식품과 연간 1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인 런천미트를 일본 내 코스모스식품 매장 397곳에 공급하고 있다. 입맛과 위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알프스식품이 개발한 자체브랜드 햄 "본센"



알프스식품의 '런천미트' 일본 수출 기념

일본인들이 우리 기술로 만든 햄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본사를 둔 코스모스는 자본금이 42억엔에 달하고, 종업원은 9,000명, 자회사 2곳을 거느려 서일본을 중심으로 400여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기업이다.

김 대표는 “일본 코스모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2,000억엔을 넘는 믿을만

한 우량 기업”이라면서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앞으로 일본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기존의 OEM 제품은 물론, 자체개발한 브랜드를 이제 미국 시장에 선보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육가공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와 같은 생산설비를 갖춘 회사는 없다. 영업 부문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뛸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사업 영역을 육가공에서 일반 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육가공시장의 성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빠른 편이고, 식품산업의 전망은 밝다”면서 “앞으로 육가공시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정식 반찬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알프스식품은 연구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현재 연구 인력은 8명 정도로 다소 부족하고, 연구시설도 현장 설비를 이용하는 등 아직은 열악한 편”이라며 “2~3년 내에 설비를 증축하고, 제대로 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보다 많은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춰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김 대표는 “알프스식품의 강점은 무엇보다 고급기술인력, 우수한 품질위생시설, 기술력, 그리고 단결력”이라며 “다만 우리의 자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OEM사에 비해 아직까지는 낮다는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노력한다면, 소비자들이 우리의 자체 브랜드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될 거라 생각한다”며 “20년 후에는 육가공 업계를 평정해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지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알프스식품의 연구실 모습

위기를 기회로

회사 설립 채 20년도 되지 않아 눈부신 성장을 한 알프스식품이지만, 위기는 있었다. 김 대표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IMF가 터졌다. 원재료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업체에선 가격DC를 요구해 난감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가격DC 대신에 타 업체보다 품질과 위생에 더 신경을 썼다. 결국 기존 업체는 물론이고, 신규 우량 업체와도 거래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몇 년 전이었다. 2006년 여름 공장에 불이 난 것이다.

임직원 모두 화재가 난 건물 옆 부재료 창고를 일주일 만에 생산공장으로 만들었고, 거래처에 납품을 할 수 있었다. 납품받은 업체는 화재가 났는데도 이렇게 빨리 납품할 줄 몰랐다고 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알프스식품은 업계에서 더 큰 신뢰를 얻게 됐다.

김 대표는 “막상 불이 났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직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다”며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노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알프스식품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구제역 때문에 원재료 상승, 수급 비상 등으로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할당관세(관세 25% 없이 수입)를 통해 원재료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고, 가격도 보험세라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진노사의 롤 모델

이런 알프스식품 경쟁력의 큰 동력은 바로 상생과 협력,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다. 알프스식품의 노사관계는 개인존중 경영, 참여·협력을 통한 상생의 경영, 열린 경영을 통한 신뢰경영으로 압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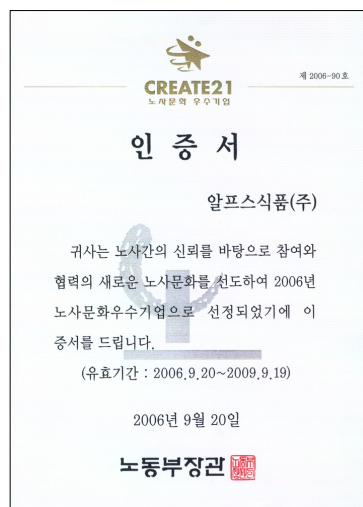
노사협의회를 정기·부정기적으로 열어 경영현황, 근로자 및 회사의 주요 안건 협의를 하면서 신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공동워크숍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질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임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팀장급의 리더십 역량 교육, 전체 직원을 위한 OJT 및 직무능력, 외국어 수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이사회와 경영자문회의, 생산전략회의에 근로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가고 있다.

정년대상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산전·후 유급 휴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상생의 고용안정’도 실천하고 있다.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경조 휴가 및 경조사비, 휴게실, 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동호회 활동, 야유회, 송년행사 등은 기본이다. 직장인 세이프 보장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에도 가입해 직원들의 혹시 모를 불상사에도 대비했다.

직원 간, 부서 간 마찰이 있을 때는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모범사원에 게는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 지난해 1월에는 노사화합 선언 및 노사공동선언식도 가졌다. 김 대표는 “노사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강조하니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됐고, 직원들은 사내 제안제도 등에 적극 참여해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기만 하다”고 말했다.

우수사원으로 뽑힌 김정운 씨는 “개인존중을 사훈의 첫 번째로 꼽은 것처럼 알프스식품 직원들의 표정은 남이 아닌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며 “퇴사 후에 재입사



한 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걸 대변하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김씨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난관을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원복지를 넘어 사회공헌까지

김 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가정환경이 열악한 서천의 학생들에게 1억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남몰래 지급해 왔다. 지난 2001년 봄 서천초등학교 김용혁 교감으로부터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였다.

김 대표는 우선 남몰르게 도와주자는 생각을 했고, 이후부터 매년 서천지역 학생 20여명에게 1,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그리고 김 사장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알프스식품의 임직원들도 장학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서천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탐방



서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교류사업

몇 달 전 알프스식품 공장에서 나소열 서천군수와 홍남표 서천교육장, 김중원 서천장학회 이사장 등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새싹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잘 것 없지만 돕고 싶었던 것일 뿐인데 지역사회에 알려져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겸손해 했지만, 직원들과 지역사회에선 지역의 향토기업의 롤 모델이라는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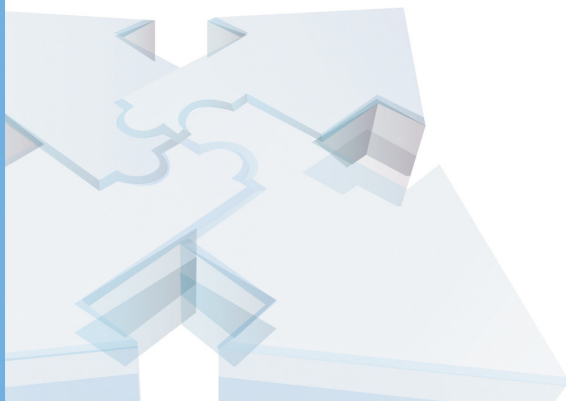
알프스식품 김재현 대표

김 대표는 향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대표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선행을 알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다”며 “직원들이 지역사회 공헌에 동참한 것은 정말 고맙지만, 그렇다고 이를 여기저기 많이 알리고 싶지는 않다. 그저 고향에서 기업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고향 후배들에게 미약하지만 희망을 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중도일보 최두선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6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7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50.3	144.2	142.1	120.9	123.3	121.4	47,763	44,940	25,592	24,752	3.3
서울	88.7	87.5	158.0	122.1	121.9	120.4	4,819	10,704	5,334	5,098	4.4
부산	128.9	125.9	161.8	121.1	124.9	122.5	1,313	1,254	1,651	1,592	3.6
대구	129.5	127.2	143.8	95.1	123.5	121.3	563	329	1,217	1,173	3.7
인천	123.4	118.7	118.3	121.4	122.5	121.4	2,558	2,822	1,452	1,385	4.6
광주	164.1	158.0	101.7	118.9	123.3	121.3	1,140	486	711	687	3.3
대전	117.9	113.9	123.6	111.3	124.6	122.4	334	274	751	730	2.8
울산	123.1	129.6	125.2	110.0	125.6	123.3	8,852	7,380	564	549	2.6
경기	174.7	152.8	181.9	120.7	123.7	121.9	7,761	8,075	6,088	5,883	3.4
강원	121.8	121.0	173.6	143.2	123.5	121.3	168	114	734	722	1.7
충북	162.2	169.8	169.0	118.5	123.3	121.6	1,021	875	798	780	2.3
충남	245.0	219.4	225.8	170.8	123.5	122.0	4,957	3,130	1,076	1,057	1.7
전북	144.3	144.5	141.3	127.7	124.4	122.5	1,077	454	881	859	2.4
전남	123.3	121.7	127.6	134.9	123.6	122.0	3,833	4,094	937	921	1.7
경북	108.2	108.8	163.3	129.8	124.7	122.3	4,257	2,166	1,445	1,405	2.8
경남	154.1	154.0	128.3	128.9	124.3	122.4	5,101	2,748	1,658	1,622	2.2
제주	127.1	130.2	83.3	155.5	121.8	119.9	8	23	296	290	2.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경제동향(요약)



- 6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여 경기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6월 충남 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한 반면 기업경기의 기준치 하회가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계속됨

전월대비 산업활동 및 고용사정은 개선되어가는 추세이나 물가상승률 확대 및 수출이 전월에 비해 다소 주춤

경기

- 6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한 138.0 기록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2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8월 BSI는 제조업은 하락, 비제조업은 상승(제조업 89, 비제조업 83)
-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래시장 동향지수는 기준지수 100을 하회하며 재래시장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 지속
- 생산지수 246.7(+1.2%), 재고지수 223.0(+7.6%) 전월대비 증가, 출하지수 223.0(-1.3%) 전월대비 감소

소비 및 물가

-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월대비 3.0% 감소, 지수는 170.8 기록
- 7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59,237대로 전월대비 0.4%(3,250대) 증가
- 7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122.0(+0.6%), 생활물가지수 123.5(+0.7%) 기록

수출입

- 6월 수출은 전월대비 1.3% 감소(49억57백만달러, 반도체 +1.7%, 합성수지 +30.0%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2.5% 증가(31억30백만달러, 원유 +19.1%, 석탄 +14.1% 등)
- 6월 무역수지는 18억27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4억13백만달러 감소)

고용

- 6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1.1%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1.7%p 증가(65.6%)
- 취업자 1.1% 증가한 105만7천명(농림어업 20만5천명, 광공업 20만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65만3천명)
- 6월 실업률 1.7%로 전월과 동일, 실업자 1만9천명으로 전월대비 1.6% 증가

금융

- 6월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 여신은 증가세 지속
- 6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919억원, 총 여신증감액 +2,565억원
- 6월 어음부도율 0.12%로 전월과 동일(천안, 홍성 상승)
- 6월 부도금액 13억8천만원으로 전월보다 4천만원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6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7.5%(669,908㎡), 착공면적 6.3%(655,836㎡) 각각 감소
- 6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00.7로 전월대비 0.7%(주요 상승지역; 아산, 천안 서북구), 전세가격지수 101.0으로 전월대비 1.0%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아산, 천안 서북구)

1. 경기동향

[전국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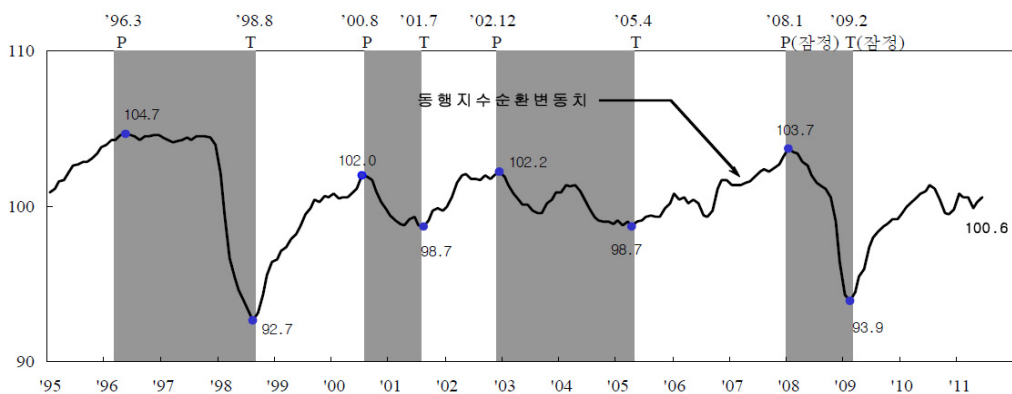
- 6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상승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

구분	'10.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동행종합지수	132.1	133.1	135.1	135.3	135.9	135.5	136.6	137.7
· 전월비(%)	0.2	0.8	1.5	0.1	0.4	-0.3	0.8	0.8
○ 순환변동치	99.5	99.8	100.8	100.6	100.6	99.9	100.3	100.6
· 전월차(%p)	-0.1	0.3	1.0	-0.2	0.0	-0.7	0.4	0.3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등이 감소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수주액 등의 증가폭이 감소폭을 상회하여 전월 대비 0.5%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7%로 전월보다 0.4%p 상승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0.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선행종합지수	128.7	129.3	130.1	129.8	129.4	129.0	129.5	130.2
· 전월비(%)	0.2	0.5	0.6	-0.2	-0.3	-0.3	0.4	0.5
○ 전년동월비	2.8	2.9	3.0	2.3	1.6	1.0	1.3	1.7
· 전월차(%p)	-0.5	0.1	0.1	-0.7	-0.7	-0.6	0.3	0.4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6월 충남 동행종합지수는 대부분의 구성지표가 지난달에 비해 상승하며 138.0을 나타냄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한 101.2를 나타내면서 전월의 증가세를 지속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0.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 동행종합지수	131.9	132.8	134.8	135.8	136.1	136.1	136.9	138.0
· 전월비(%)	-0.0	0.7	1.5	0.8	0.2	0.0	0.6	0.8
○ 순환변동치	100.1	100.2	101.3	101.5	101.1	100.7	100.8	101.2
· 전월차(%p)	-0.6	0.1	1.1	0.1	-0.4	-0.4	0.2	0.4

주 : p는 잠정치임.

- 6월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는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지표가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세계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수출액이 소폭 하락하였음
 - 비농가취업자수(+0.3%), 산업생산지수(+1.7%), 대형소매점판매지수(+3.1%), 전력사용량(+0.9%), 수입액(+2.9%) 증가
 - 수출액(-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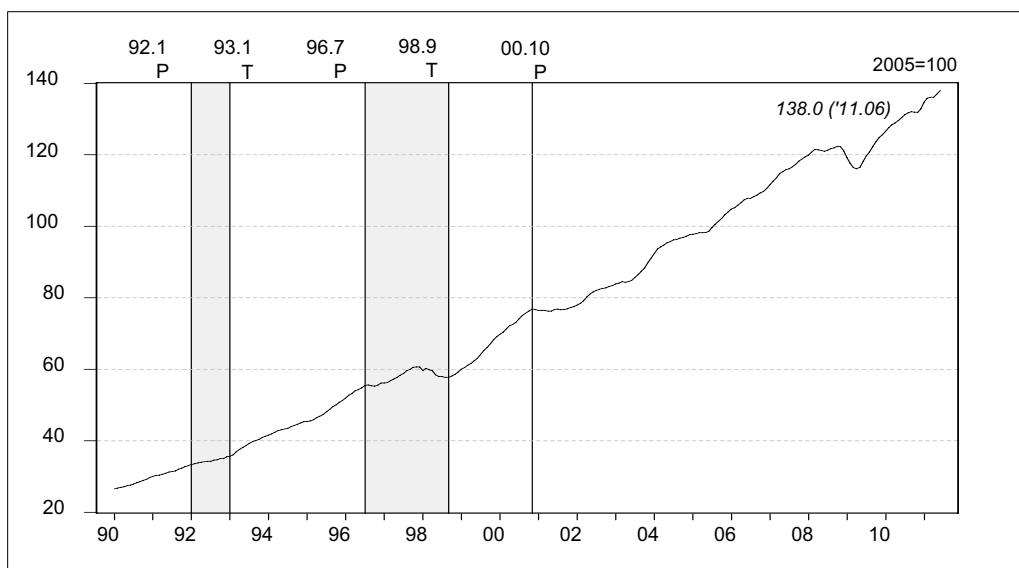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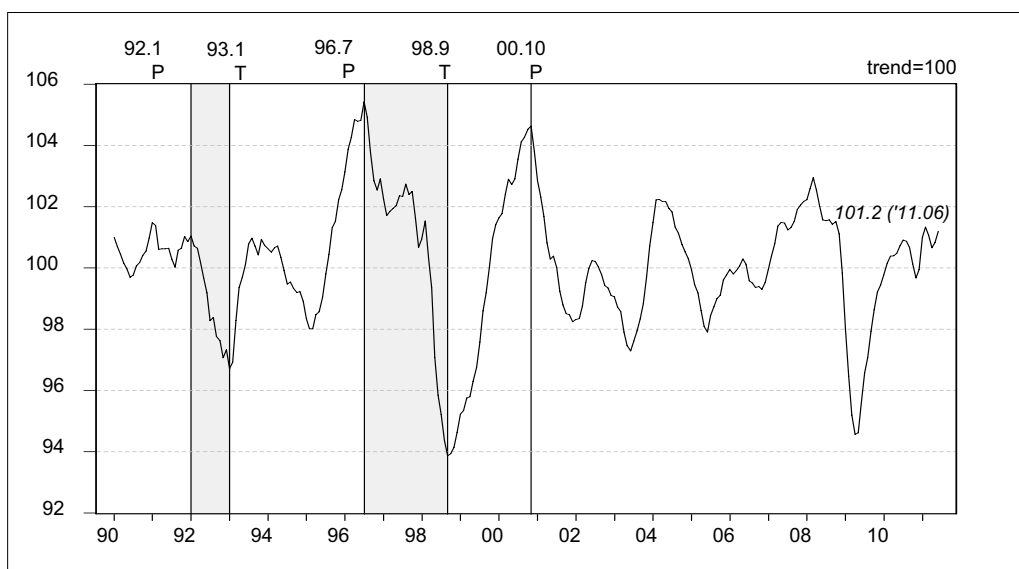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0.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비농가취업자수	-0.3	0.2	0.7	1.0	0.5	0.3	-0.2	0.3
산업생산지수	0.8	-0.1	0.8	0.4	-0.3	0.0	1.1	1.7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6	10.5	14.2	6.2	-2.5	-4.4	3.8	3.1
전력사용량	0.8	1.2	1.6	0.9	1.0	0.7	1.1	0.9
수출액(실질)	-0.5	-0.2	1.0	-0.3	-0.4	0.1	0.4	-0.4
수입액(실질)	0.7	-1.7	1.2	-1.2	1.4	1.7	2.1	2.9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8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91)보다 2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95로 전월(98)보다 3p 하락
- 8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83으로 전월(78)보다 5p 상승, 자금사정전망 BSI는 79로 전월(84)보다 5p 하락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은 지난 5월부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비제조업 업황은 7월에 비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해 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경기	94	98	99	93	90	91	89(91)	-2(+1)
매출	116	113	112	111	111	106	101	-5
생산	111	109	111	109	108	107	106	-1
신규수주	111	111	109	109	106	105	98	-7
채산성	89	84	86	86	85	87	86	-1
제품재고	98	96	98	99	101	103	105	+2
인력사정	89	91	89	91	90	89	93	+4
자금사정	99	95	100	97	96	98	95(90)	-3(0)
외부자금수요	115	115	119	116	115	116	116	0
자금조달사정	99	97	101	100	96	96	94	-2

주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업경기	85	83	82	81	85	78	83(83)	+5(-1)
매출	85	85	90	91	92	93	92(93)	-1(-5)
채산성	83	89	89	87	87	91	88(90)	-3(-1)
인력사정	93	85	86	86	87	82	84(90)	+2(+2)
자금사정	88	90	95	88	86	84	79(90)	-5(0)
외부자금수요	117	121	123	123	120	124	130	+6
자금조달사정	86	93	93	94	89	91	89	-2

주 :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7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업황 체감지수는 전월보다 3.0p 상승한 63.1 기록
 - 업황(+3.0p), 매입원가(+6.2p), 상품판매가격(+8.0p), 구매고객수(+3.6p)
 - 매출(-11.6p), 마진(-13.2p), 자금사정(-7.1p), 외상거래비중(-2.1p)
- 8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전망지수 역시 업황 지수가 전월보다 7.9p 상승한 96.7 기록
 - 업황(+7.9p), 자금사정(+7.6p), 외상거래비중(+2.0p), 구매고객수(+5.1p)
 - 매출(-1.5p), 마진(-0.6p), 매입원가(-11.9p), 상품판매가격(-3.1p)
- 업황, 자금사정, 구매고객수 등 재래시장 전망지수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이는 휴가철인 성수기로 인한 시장고객 증가와 물가의 소폭 하락, 날씨기후 등의 영향이 전망지수가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전망)
업황	전국	47.5	58.6	63.0	63.5	61.8	53.2	79.8
	충남	53.6	71.4	84.6	70.7	60.1	63.1	96.7
매출	전국	47.6	62.2	65.5	67.0	59.2	52.5	72.7
	충남	48.8	75.0	77.2	67.3	58.3	46.7	86.5
마진	전국	50.9	59.9	65.0	65.1	62.3	54.5	75.1
	충남	61.9	71.4	69.1	70.7	66.6	53.4	87.6
매입 원가	전국	149.2	156.8	144.8	142.2	133.9	137.6	112.6
	충남	145.2	147.6	142.3	133.9	128.8	135.0	104.6
상품 판매가격	전국	108.1	112.9	110.7	109.0	106.9	106.7	99.1
	충남	108.3	111.9	112.0	109.3	104.2	112.2	99.8
자금 사정	전국	55.1	61.6	63.0	64.3	64.0	57.9	79.1
	충남	66.7	72.6	70.3	70.7	67.7	60.6	92.4
외상 거래비중	전국	99.2	101.8	101.7	101.5	100.5	102.3	100.5
	충남	98.8	111.9	102.0	102.3	103.7	101.6	102.5
구매 고객수	전국	50.6	60.7	66.4	66.6	59.7	53.7	76.0
	충남	73.8	72.6	80.4	68.7	59.4	63.0	89.6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산업생산 동향]

- 6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2%, 전월대비 1.2% 각각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의약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P	6월 ^P
산업생산지수	223.8	227.2	206.8	234.8	234.6	246.7	246.7
전년동월비	20.6	9.5	10.9	3.6	8.9	13.7	10.2
전월비	2.9	4.8	2.1	-4.4	1.6	5.3	1.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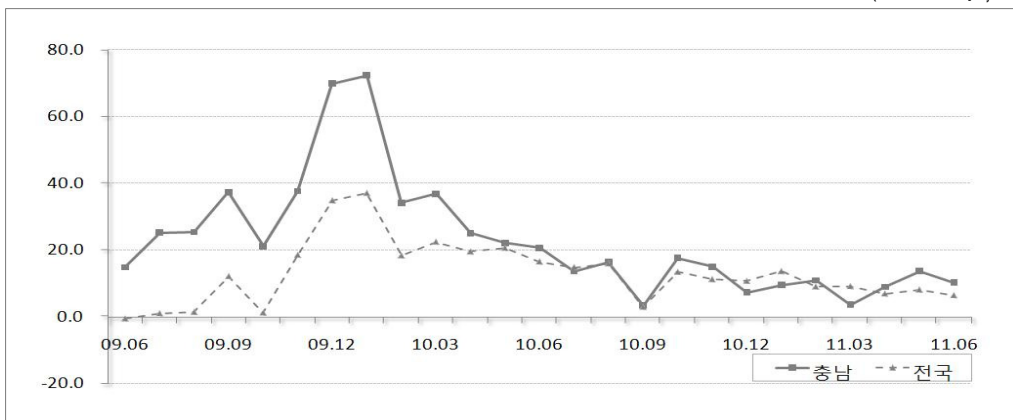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1.6) : TV용LCD, 노트북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등
- 기계및장비(+21.3)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치, 감속기, 쉐베이어 등
- 자동차(+13.3) :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동력전달장치, 기관용부품 등
- 의약품(+23.9) : 의약품

[감소업종]

- 비금속광물제품(-5.1) : 액정모니터유리, 레미콘, 아스콘, 흙관 등
- 고무및플라스틱(-5.1) : 플라스틱포장용기, 플라스틱문 및 창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6월 충남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전월대비 1.3% 감소
 - 석유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P	6월 ^P
출하지수	205.5	201.6	192.3	219.1	218.5	225.3	223.0
전년동월비	19.5	8.2	14.3	5.1	11.5	14.8	8.5
전월비	2.9	4.6	7.1	-6.4	2.4	3.8	-1.3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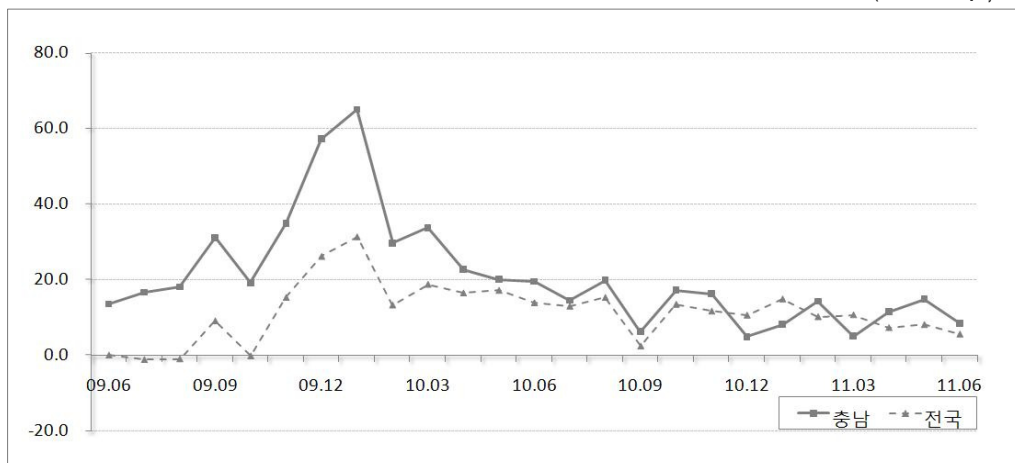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5.4) : TV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노트북용LCD 등
- 자동차(+24.2) :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동력전달장치, 기관용부품 등
- 기계및장비(+23.5)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치, 감속기, 컨베이어, 차량용에어컨 등
- 전기장비(+25.1) : 배전반, 리튬2차전지팩, 차량용조명등, 스위치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3.9) : 병커C유, 제트유, 등유, 솔벤트 등
- 비금속광물제품(-5.8) : 액정모니터유리,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6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2%, 전월대비 7.6% 각각 증가
 -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6월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6월 ^P
재고지수	161.5	214.3	207.9	204.1	200.9	210.2	223.0
전년동월비	32.9	71.9	54.0	46.0	38.6	35.2	38.2
전월비	6.0	13.4	-2.0	-2.6	0.5	4.1	7.6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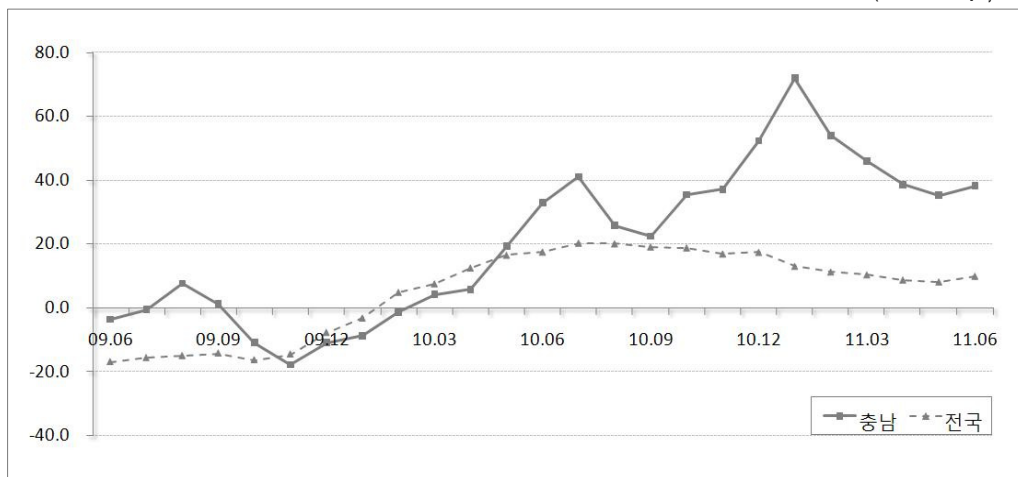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52.1) : TV용LCD, PDP, 노트북용LCD, 포토마스크 등
- 제1차금속(+31.6)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칼라강판 등
- 전기장비(+37.5) : 소형2차전지셀, 김치냉장고, 리튬2차전지팩 등
- 섬유제품(+60.7) : 자동차용커버, 면사, 합성섬유직물, 타포린 등

[감소업종]

- 자동차(-35.9) : 중형자동차, 대형승용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 기계및장비(-13.1) : 차량용에어컨, 공기청정기, 베어링, 패키지형에어콘 등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 물가

[소비]

- 6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17,627백만원으로 전월대비 3.0% 감소, 전년동월대비 43.1% 증가, 지수는 170.8 기록
- 내구재의 증가에 비해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감소로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3.8% 감소,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5.2) : 가전제품(+11.3), 통신기기(-21.6), 컴퓨터(-4.3)
- 준내구재(-12.0) : 운동·오락(-31.2), 의복(-11.3), 가방(-10.0)
- 비내구재(-1.9) : 서적·문구(-12.5), 화장품(-6.1), 음식료품(-1.9)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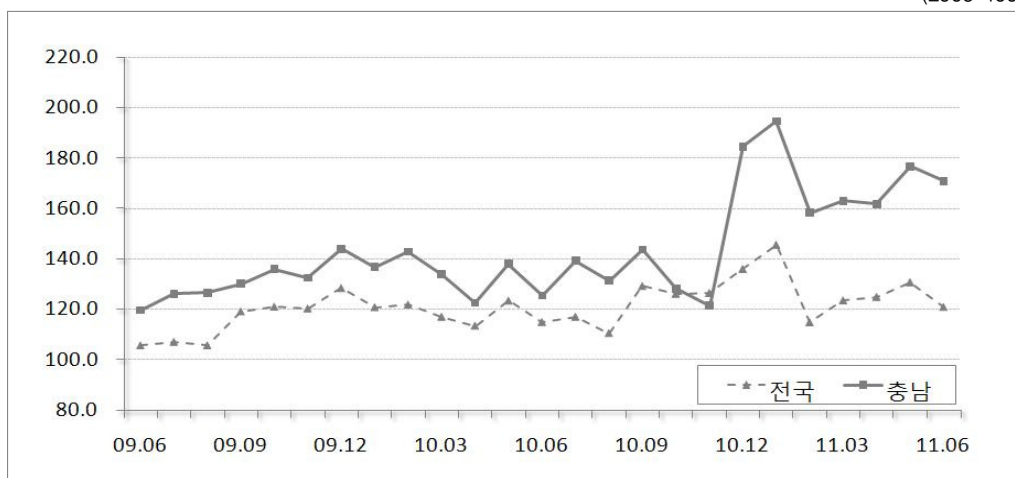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6월	2011년				증감률	
		3월	4월	5월 ^o	6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524,434	5,093,353	5,136,586	5,367,114	4,890,436	10.8	-10.3
충 남 대형소매점	82,218	112,386	111,521	121,238	117,627	43.1	-3.0
충 남 대형마트	63,271	70,159	69,653	78,018	75,025	18.6	-3.8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7월 충남의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59,237대로 전월대비 0.4%(3,250대) 증가, 전년 동월대비 4.8%(39,373대) 각각 증가
 - 차종별로는 전월대비 승용차(+0.5%), 특수화물(+0.5%), 화물차(+0.1%) 등록대수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0.6%) 등록대수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6.2%), 화물차(+2.0%), 특수화물차(+6.4%) 등록대수는 각각 증가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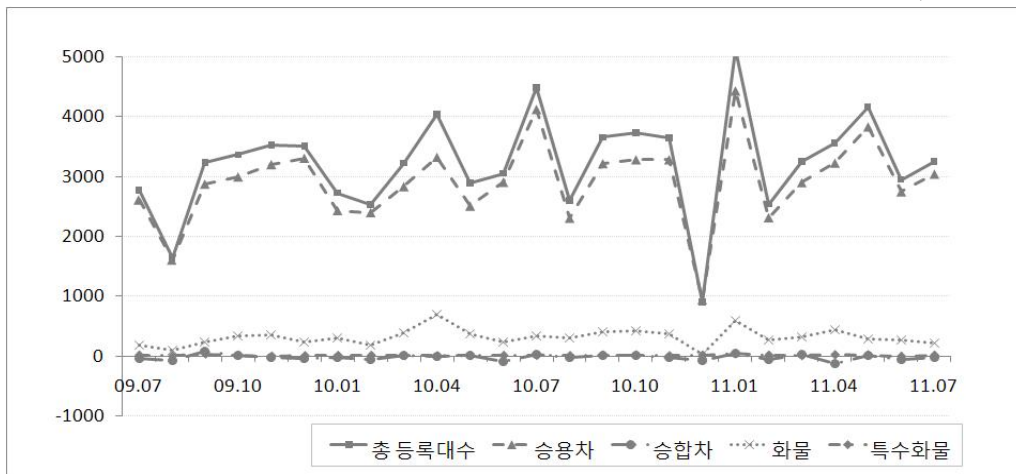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0년	2011년				증 감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19,864	848,873	853,037	855,987	859,237	39,373	3,250
차 종 별	승용	574,616	600,551	604,388	607,137	610,184	35,568	3,047
	승합	50,498	50,292	50,310	50,243	50,211	-287	-32
	화물	192,165	195,308	195,599	195,870	196,091	3,926	221
	특수화물	2,585	2,722	2,740	2,737	2,751	166	14
용 도 별	자가용	782,177	810,219	813,301	816,040	819,220	37,043	3,180
	관용	3,859	3,999	4,026	4,003	4,026	167	23
	영업용	33,828	34,655	35,710	35,944	35,991	2,163	47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7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으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5% 각각 상승
 - 농축산물(+12.6%), 공업제품(+6.4%), 집세(+3.3%), 공공서비스(+0.6%), 개인서비스(+2.8%)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3.5로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36.5로 전월대비 10.3%, 전년동월대비 12.7% 각각 상승
 - 신선어개 14.2%, 신선채소 6.2%, 신선과실 16.4%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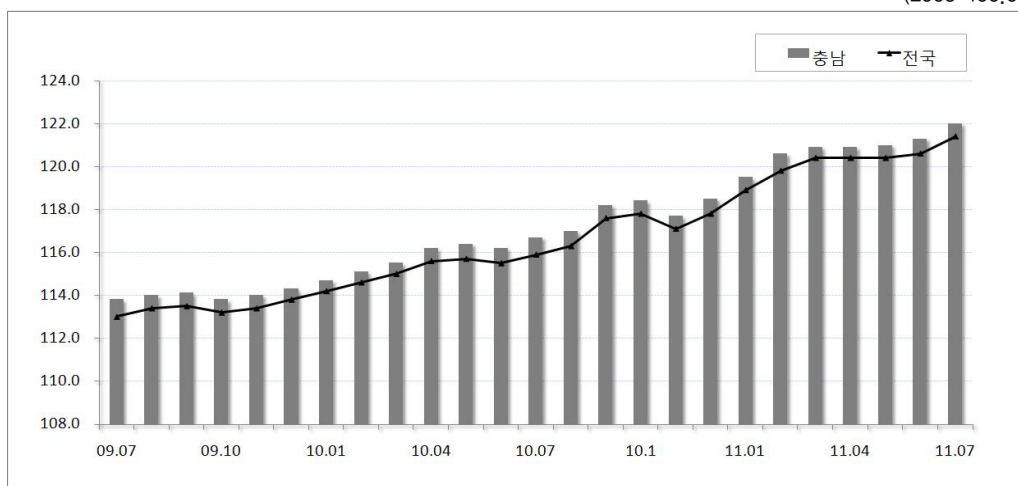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7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5.9	120.4	120.4	120.6	121.4		4.7	0.7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6.7	120.9	121.0	121.3	122.0		4.5	0.6
상품 상·하	상 품		118.5	126.1	125.6	126.0	127.6		7.7	1.3
	서비스		115.4	117.2	117.7	117.9	118.0		2.3	0.1
생활물가지수			118.5	123.0	122.5	122.7	123.5		4.2	0.7
신선식품지수			121.1	136.8	125.4	123.8	136.5		12.7	10.3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6월 충남의 수출은 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석유제품의 감소세 전환으로 전월대비 1.3% 감소
 - 전년동월대비 7.9% 증가(49억57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12.2%→+7.9%)
 - 석유제품(+291.2%)과 컴퓨터(+37.9%)의 증가가 수출 증가세에 기인
- 6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탄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2.5%, 전월 대비 12.5% 각각 증가
 - 원유(+60.8%),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98.3%)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44.3%→+32.5%)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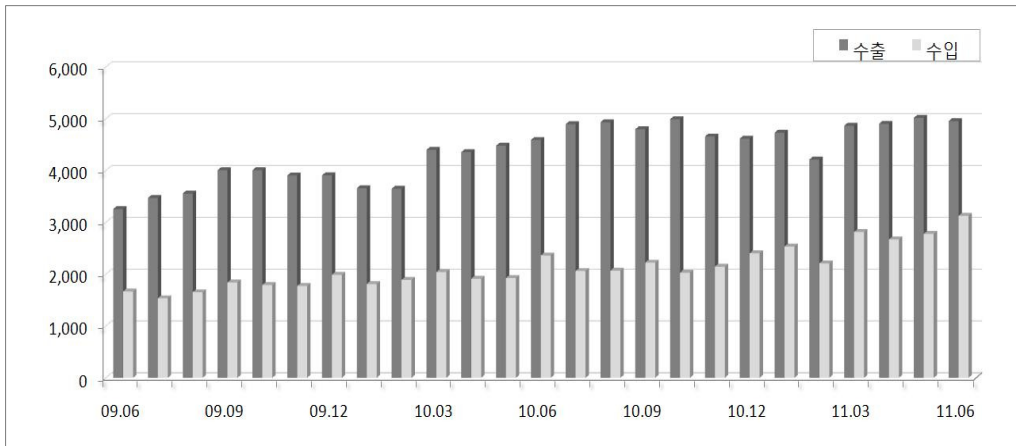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2,049	48,052	48,596	47,458	47,763	13.6	0.6	
	수입	35,255	45,474	44,151	45,353	44,940	27.5	-0.9	
	무역수지	6,794	2,578	4,445	2,105	2,823	-	-	
충남	수출	4,593	4,868	4,905	5,021	4,957	7.9	-1.3	
	수입	2,363	2,816	2,672	2,781	3,130	32.5	12.5	
	무역수지	2,230	2,052	2,233	2,240	1,827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6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957	7.9	-1.4	100.0
1	반도체	1,518	10.4	1.7	30.6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61	-27.1	-11.7	21.4
3	석유제품	386	52.8	-17.0	7.8
4	합성수지	221	38.3	30.0	4.5
5	컴퓨터	204	26.7	-4.7	4.1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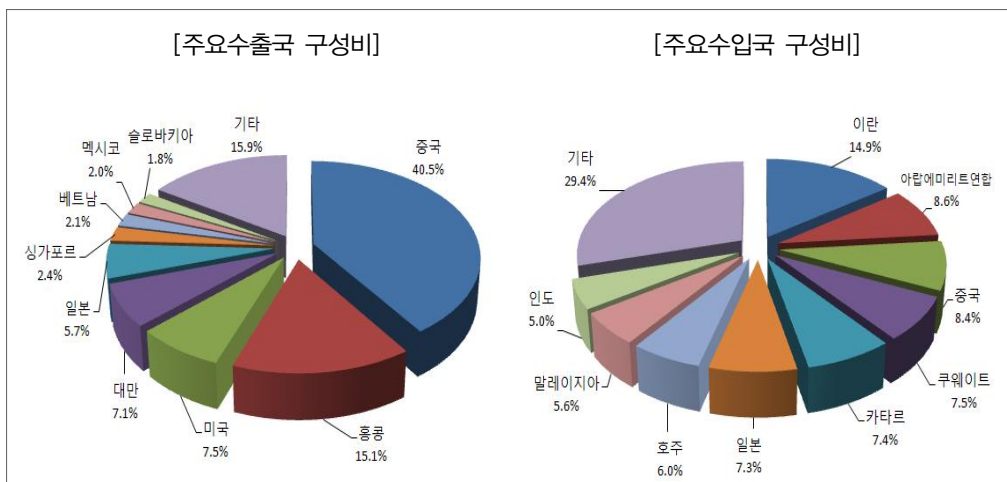
6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3,130	32.5	12.5	100.0
1	원유	1,378	60.8	19.1	44.0
2	석탄	340	11.5	14.1	10.9
3	석유제품	295	-9.2	-22.4	9.4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136	98.3	97.1	4.3
5	합금철선철및고철	102	141.7	142.9	3.3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6월 국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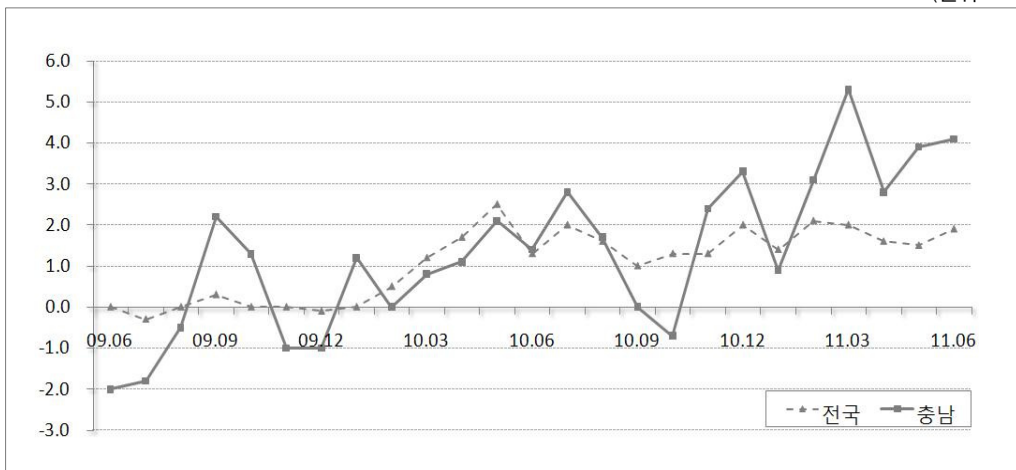
- 6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7%,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640천명으로 전년동월(1,612천명)보다 28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76천명으로 전년동월(1,037천명)보다 39천명(+3.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5.6%으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취업자]

- 6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1.1% 각각 증가
 - 농림어업 205천명(+4.8%), 광공업 200천명(+8.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53천명(+2.8%)으로 전월대비 각각 증가하였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6월 충남의 실업자는 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2.1%)대비 0.4%p 감소한 1.7%

6. 금 융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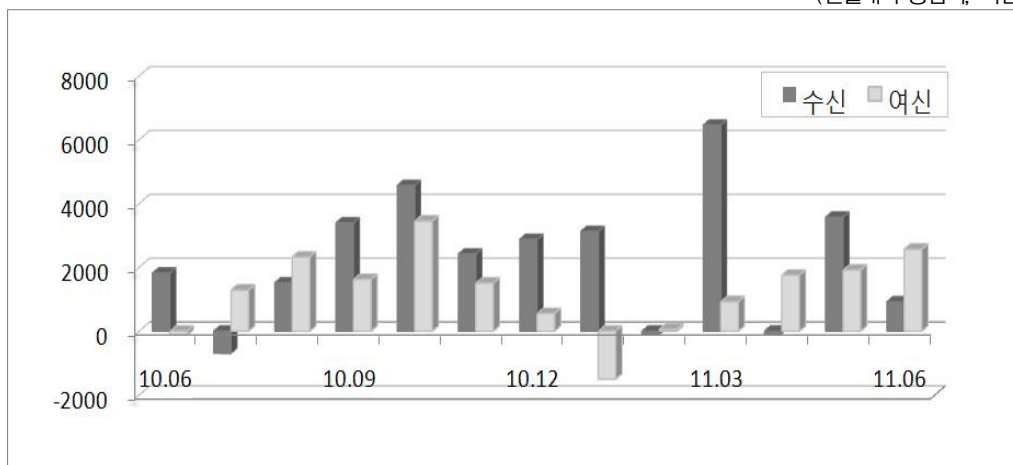
- 6월말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5조 6,866억원, 비은행기관 28조 9,58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4조 6,452억원 기록
 - 예금은행 : 수시입출식예금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거치·적립식예금이 줄어들어 감소로 전환 [5월 +3,343억원 → 6월 -1,239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의 농산물판매대금 유입과 자산운용사의 MMF 및 주식형펀드 등으로 자금유입이 늘어나 비은행기관 수신은 증가폭 확대 [5월 +230억원 → 6월 +2,157억원]
 - 총 수신증감액 : 5월 +3,573억원 → 6월 +919억원

[여신]

- 6월말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3조 2,444억원, 비은행기관 15조 6,25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38조 8,700억원 기록
 - 예금은행 :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 확대 [5월 +856억원 → 6월 +1,723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이 증가로 전환함에 따라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세 지속 [5월 +1,089억원 → 6월 +811억원]
 - 총 여신증감액 : 5월 +1,914억원 → 6월 +2,565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6월 충남의 부도율은 0.12%로 전월과 동일
 - 지역별로는 천안 0.25%, 홍성 0.02%, 논산, 공주, 서산 각각 0.00% 기록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연중	6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17	0.24	0.87	0.10	0.12	0.12	0.00	-0.12
천 안	0.19	0.30	1.39	0.17	0.21	0.25	0.04	-0.05
홍 성	0.33	0.38	0.43	0.10	0.04	0.02	-0.02	-0.36
논 산	0.20	0.20	0.05	0.00	0.06	0.00	-0.06	-0.20
공 주	0.02	0.00	0.36	0.00	0.11	0.00	-0.11	0.00
서 산	0.05	0.05	0.00	0.00	0.00	0.00	0.00	-0.05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6월 중 부도금액은 13억 8천만원으로 전월보다 4천만원 감소
 - 제조업 : 5월 7억 4천만원 → 6월 11억 1천만원
 - 건설업 : 5월 5억원 → 6월 0원
 - 서비스업 : 5월 1억 6천만원 → 6월 2억 4천만원
- 6월 중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월(0개)과 동일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7.3	145.3	8.2	7.4	11.1	3.8	3.7
	건설업	1.0	1.0	0.0	5.0	0.0	-1.0	-5.0
	서비스업	15.8	6.9	3.5	1.6	2.4	-13.4	0.8
	기타	1.3	0.0	0.1	0.2	0.3	-1.0	0.1
	합계	25.4	153.2	11.8	14.2	13.8	-11.6	-0.4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1	0	0	0	0	-1	0
	건설업	0	0	0	0	0	0	0
	서비스업	0	0	1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합계	1	0	1	0	0	-1	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6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02개로 전월(167개)보다 35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6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669,908㎡로 전월대비 7.5%, 전년동월대비 22.7% 각각 감소
- 6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26.3%), 주거용(24.6%), 상업용(16.8%)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866,573	610,148	593,974	723,947	669,908	-22.7	-7.5	
주거용	111,125	140,962	164,987	207,651	164,762	48.3	-20.7	
상업용	150,977	138,597	104,186	125,688	112,341	-25.6	-10.6	
농수산용	59,937	46,901	63,152	49,716	72,901	21.6	46.6	
공업용	458,628	211,298	172,106	182,288	176,240	-61.6	-3.3	
기 타	85,906	72,390	89,543	158,604	143,664	67.2	-9.4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 6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655,836㎡로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12.8% 각각 감소
- 6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22.6%), 주거용(21.6%), 상업용(17.8%)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6월	3월	4월	5월	6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751,798	700,517	724,923	700,162	655,836	-12.8	-6.3	
주거용	108,025	252,026	278,803	157,476	141,908	31.4	-9.9	
상업용	97,558	96,681	103,106	189,697	116,544	19.5	-38.6	
농수산용	65,146	68,476	58,670	44,384	52,338	-19.7	17.9	
공업용	439,021	198,839	181,276	212,889	148,130	-66.3	-30.4	
기 타	42,048	84,495	103,068	95,716	196,916	368.3	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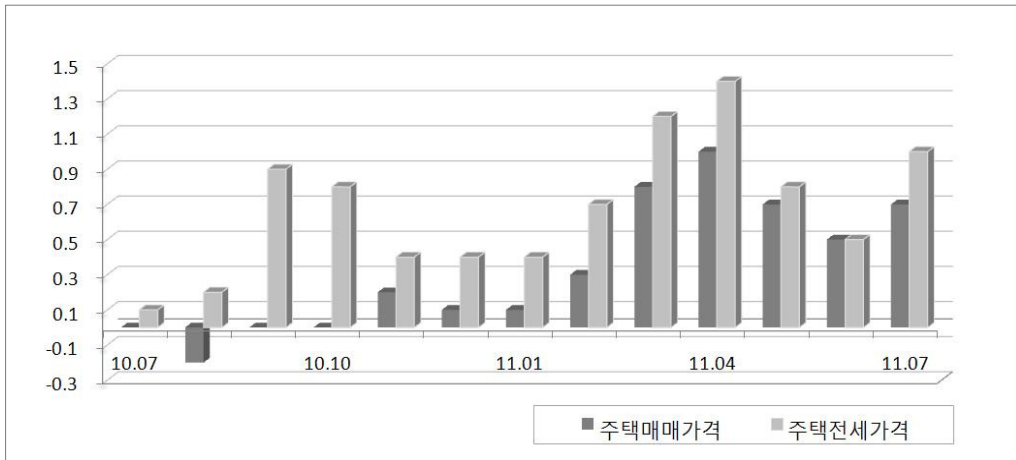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7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4.4%, 전월대비 0.7% 각각 상승
 - 주택매매 물량 부족 및 수요자들의 매매전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아산(+1.2%), 천안 서북구(+0.9%)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연립 주택 모두 상승
- 7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9.1%, 전월대비 1.0% 각각 상승
 - 전세선호현상과 전세물량부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1.2%), 아산(+1.2%) 지역이며, 아파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1.7.15]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737,140㎡)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2013년까지 식료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입주

['11.7.15] 충청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 체결

-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 한국발명진흥회 최종협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미활용 특허 지원을 통한 지역중소·벤처기업육성 업무협약' 체결
- 충남도는 도본청과 시·군에 특허거래·이전을 위한 지역 산업체 홍보와 '우수휴면 특허 기술이전 창구'를 18개소(도2, 시군16) 개설하는 등 휴면특허 상품화 지원

['11.7.18]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 도청 대회의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 관광시책자문단과 도 국·과장, 15개 시·군 (연기군 제외) 관광담당과장, 세일종합기술공사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안)(2012-2016)'에 대해 논의
- '국민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충청남도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거점 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권역별 연계구축, 국민관광지 조성촉진 및 관광루트 활성화, 소통과 만남의 연대 공정여행 추진,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유니버설 관광지 조성 등 8가지 추진전략 제시

['11.7.18] 중국 칭하이성(青海省)과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 칭하이성(青海省)의 메이이(梅毅) 외사관공실 부주임과 경제·문화·관광·청소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약속

['11.7.20] 충남형 강소기업 30개 업체 지정

- 충남테크노파크에서 30개 업체에 대해 지정서와 지정표찰을 수여하고, 2017년까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24억원과 혁신형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6~1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인력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우대 등의 혜택 부여

- ※ 천안(12업체) : 큐에스아이, 삼동산업, 성진하이메크, 에프엔에스테크, 태성전장, 신라정밀, 케이원전자, 두선, 에나인더스트리, 대일공업, 벨금속공업, 대영오앤이
 보령(1업체) : 동방침구제작소
 아산(5업체) : KB오토시스, 디바이스이엔지, 한일산업, 엠과워, 자원
 논산(2업체) : 유피씨, 프렉코 홍성(2업체) : 동신포리마, 세림산업
 예산(4업체) : 비즈로셀, 녹수, 고려비엔피, 신호인더스트리
 당진(4업체) : 대하, 현대호이스트, 광성기업, 아하애텍 등

['11.7.20] 2011년 제2차 28개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 도청 대회의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정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출범식과 ‘우리의 다짐’ 결의문을 채택
- ※ (주)천안주거복지센터, (주)양원농장농업회사, 한길코리아(주), (주)유룩스, 농업회사법인 (주)참사랑식품, (주)희망나눔, 농업회사법인 인덕애프엔디(주), 한밭에코에너지(주), (사)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 사업단 일남, 농업회사법인 산야원(주), (사)해미읍성 역사 보존회, (주)갈끄미, 공골식품영농조합, 바랑산영농조합, (주)좋은마음, (사)한옥체험업협회, 생명의 고향 영농조합, (주)위타연, 장항항만농어조합, 월산리영농조합, 지성영농조합, (주)농촌생활목공센터, 전통예술단 혼, 칠갑산 국사봉 영농조합, 약초밥상 영농조합, (주)행복한 마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본부 상담실, (주)더부러

['11.7.22] 당진항 2단계 사업 준공

- 총 3조1296억원(재정 1조5771억원, 민자 1조5525억원)을 투입하여 접안시설 12.2km(53선석), 하역능력은 9,099만톤(년)이며, 24선석 4,148만톤(년)의 화물처리
-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등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천안, 아산, 대전 등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

['11.7.25] 수도권 이전기업 희성피엠텍 당진공장 준공

- 국내 유일의 귀금속 회수·정제 전문기업으로 안산에서 당진 부곡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여 2014년까지 7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600여명의 고용창출과 1,039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기대

['11.7.2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창립 12주년 기념식

- 대전엑스포 컨벤션센터 웨딩홀에서 대전시장·중기청장·여성기업인 등 100명이 참석하여 우수 여성기업인 표창 및 리셉션 진행

['11.7.28] 충남 농식품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7개 사업 선정

- 보령·홍성 양돈클러스터 사업단의 “오메가-3 돼지”, 홍성 백년대계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싱긋”, 논산 딸기, 연기 전통장류, 청양 고추·구기자·둔송 구기주를 테마로 스토리텔링과 만화 콘텐츠를 개발·지원

['11.8.1~8.3] 피서철 해수욕장 물가안정 추진실태 점검

- 도내 6개 중점관리 해수욕장(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해수욕장 등)의 피서지 옥외가격표시여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담합 등 부당요금에 대해 집중 단속

['11.8.1~8.5] 2011 하계 대전·충남 중등교사 경제 직무연수

- 충남발전연구원 내 충남경제교육센터 주관으로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대전·충남지역 중등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 지역경제의 이해, 효과적인 강의 전략 등의 전문가 강의와 분임토의, 현장방문(충남테크노파크) 등 실시

['11.8.8]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과 우호교류협정 양해각서 체결

- ‘블라코브’ 장관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충남의 농산물 재배 및 제조기술 전수와 상공회의소간 교류, 인삼제품의 판매 등 교류협력 약속

['11.8.10] 2011년 충남 유망 중소기업 24개 업체 지정

-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0개 업체가 응모하여 신용평가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수준, 기술혁신 이행노력과 지역경제기여도 및 수출능력 등을 평가하여 ‘충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향후 6년간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시 추가 1.0% 금리우대(총 3% 혜택), 국내·외 판로개척 우선 지원(전시·박람회, 판매전 등), 충남 BIZ 콜센터 경영자문 등 우선 지원
- ※ (주)케이티엠, 태성지에스티(주), (주)광산, 올팩물, 용마산업사, 태창금속산업(주), (주)씨티네트웍스, (주)에스앤비푸드, (주)좋은마음, (주)휴넷플러스, (주)황산요업, (주)우리황토, (주)식스시그마디비, 램테크놀러지(주), (주)엠아이에스, (주)맛생식품, (주)동신화학, (자)대한금속, (주)디앤티, (주)백제물산, (주)신라원, (주)이-글 벳, 오행생식, (주)신의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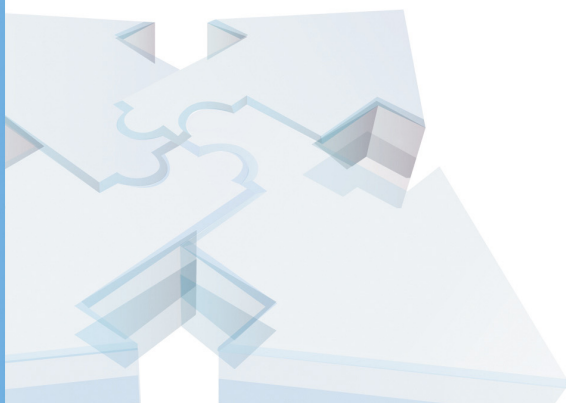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혁신강국 중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대응
 -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물류전문업체 육성으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경제의 새로운 동력, K-POP 열풍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원전사고 이후 전력불안, 일본 제조업의 환골탈태 계기될까
 - 녹색시대의 총아 2차전지, 차세대 전지개발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
 - 막 내린 Easy Energy시대, 에너지 파고 거세진다
 -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진단, 경쟁 노출도 높고 부가가치 낮은 편
 - 그린 SCM이 지속가능 기업의 경쟁력
 - 세계주가 폭락, 성장궤도 하향이 서막인가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방안
 -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
 -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미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평가
 -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 브릭스(BRICs)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
 - 중국의 중진국 함정 논란과 시사점
 -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배경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중소기업의 거래 협력실태 및 개선과제
 - 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경영 실태조사
 -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28,034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101,342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31,234
1인당 GNI ¹⁾	억원	1,884	2,016	2,128	2,195	2,400
경제성장률	%	5.2	5.1	2.3	0.3	6.2
산업구조						
농림어업	%	3.2	2.9	2.7	2.8	2.6
광공업		27.4	27.5	28.1	28.0	30.8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2	1.3	1.8	2.0
건설업		7.5	7.4	7.0	6.9	6.5
서비스업 및 기타		59.7	60.0	60.8	60.4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1	80.3	77.6	74.4	81.2
취업자	천명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농림어업	%	7.7	7.4	7.2	7.0	6.6
광공업		17.6	17.2	16.9	16.4	17.0
건설업		7.9	7.9	7.7	7.3	7.4
서비스업 및 기타		66.5	67.2	67.9	69.3	69.1
실업률 (ILO기준)	%	3.5	3.2	3.2	3.6	3.7
경상수지		14,083	21,770	3,198	32,791	28,214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1,433	37,129	5,170	37,866	41,904
서비스수지		△13,332	△11,967	△5,734	△6,641	△11,229
소득수지		75	135	4,435	2,277	768
경상이전수지		△4,092	△3,527	△674	△712	△3,229
수출액	억달러	3,254	3,715	4,220	3,635	4,664
수입액		3,094	3,568	4,353	3,231	4,252
총저축률	%	30.8	30.8	30.5	30.2	32.0
민간비중	%	20.8	20.2	21.2	23.4	25.2
정부비중		10.0	10.6	9.3	6.8	6.8
총자본형성	십억원	268,216	277,729	277,773	240,412	277,460
최종소비지출	%	69.0	69.1	70.0	70.1	67.8
민간비중	%	54.5	54.4	54.7	54.1	52.5
정부비중		14.5	14.7	15.3	16.0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0.9	1.4	8.6	-0.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2.5	4.7	2.8	2.9

주 : 1) 당해년 경당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 경제지표 (2011.8.1기준)

금리

구 분	'09말	'10말	'11.7말	7.28	7.29	8.1	전일비	'10말비
콜금리(1일),%	2.01	2.49	3.27	3.26	3.27	3.26	△0.01	0.77
CD(91일),%	2.86	2.80	3.59	3.59	3.59	3.59	0.00	0.79
국고채(3년),%	4.41	3.38	3.85	3.81	3.85	3.88	0.03	0.50
국고채(5년),%	4.92	4.08	4.02	3.98	4.02	4.02	0.00	△0.06
회사채(3년, AA-),%	5.53	4.27	4.54	4.50	4.54	4.57	0.03	0.30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억원)	707	△1,488	2,804	1,725	2,804	-	1,079	4,292

주가

구 분	'09말	'10말	'11.7말	7.28	7.29	8.1	전일비	'10말비
KOSPI지수	1,682.77	2,051.00	2,133.21	2,155.85	2,133.21	2,172.31	1.83%	5.91%
·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856	53,969	59,825	58,038	59,825	63,583	3,758	9,614
KOSDAQ지수	513.57	510.69	536.05	538.54	536.05	544.39	1.56%	6.60%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01,051	39,023	△1,613	14,123	△1,613	2,683	4,296	

※ 기간중 : '09말('09.1.1~12.31), '10말('10.1.1~12.31), '11.1말('11.1.1~1.31), 8.1('11.8.1~8.1).

환율

구 분	'09말	'10말	'11.7말	7.28	7.29	8.1	전일비	'10말비
₩/US(종가)	1,164.50	1,134.80	1,054.50	1,051.70	1,054.50	1,050.50	+0.38	+8.02
선물환(NDF, 1개월물)	1,165.90	1,137.00	1,056.70	1,053.90	1,056.70	1,053.40	+0.31	+7.94
₩/¥100	169.47	170.43	163.65	163.13	163.65	163.29	+0.22	+4.38
¥/US\$	1,264.52	1,393.59	1,360.29	1,352.67	1,360.29	1,353.21	+0.52	+2.98
US\$/EUR	92.09	81.43	77.52	77.75	77.52	77.63	△0.14	+4.90
CNY/US\$	1,4325	1,3233	1,4291	1,4367	1,4291	1,4385	+0.66	+8.71

※ '10년 평균 환율 : (₩/US\$) 1,156.3원, (₩/¥100) 1,320.6원.

※ '11년 평균 환율('11.1.1~현재) : (₩/US\$) 1,094.7원, (₩/¥100) 1,342.1원.

※ 전일비(%) 및 '10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9말	'10말	'11.7말	7.28	7.29	8.1	전일비	'10말비
LIBOR(Dollar, 3월, %)	0.25	0.30	0.26	0.25	0.26	0.26	0.00	△0.04
T/NOTE(10년, %)	3.83	3.29	2.80	2.95	2.80	2.75	△0.15	△0.49
DOW	10,428	11,578	12,143	12,240	12,143	12,132	△96.87	565.73
NIKKEI	10,546	9,937	9,833	9,901	9,833	9,965	1.34	△2.58%
SANGHAI COMP	3,277	2,808	2,702	2,711	2,702	2,704	0.07	△3.72%
외평채가산금리('13년물, bp)	59	175	119	121	119	116	△2	△56
CDS (5년, bp)	86	95	103	103	103	101	0	8
CRS (1년, %)	2.25	1.10	2.38	2.44	2.38	2.40	0.02	0.97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9말	'10말	'11.7말	7.28	7.29	8.1	전일비	'10말비
DUBAI (\$/배럴)	78.04	88.80	111.10	112.28	111.10	113.21	△1.18	22.30
WTI 선물 (\$/배럴)	94.75	94.84	95.7	97.44	95.7	94.89	△1.74	0.86
Brant 선물 (\$/배럴)	77.93	94.75	118.26	117.4	118.26	116.81	0.86	23.51
원당(센트/파운드)	26.95	32.12	29.80	29.90	29.80	28.90	△0.33	△7.22%
밀 (센트/부셸)	542	794	673	693	673	676.5	△2.89	△15.27%
대두 (센트/부셸)	1,049	1,403	1,357	1,372	1,357	1,362	△1.09	△3.28%
옥수수 (센트/부셸)	415	629	669	686	669	685.75	△2.48	6.36%
동 (\$/톤)	7,377	9,665	9,750	9,770	9,750	9,847	△0.20	0.88%
알루미늄 (\$/톤)	2,242	2,468	2,609	2,633	2,609	2,634	△0.91	5.71%

※ '10년 평균 유가 : (Dubai) 78.13\$, (WTI) 79.61\$.

※ '11년 평균 유가('11.1.1~현재) : (Dubai) 106.26\$, (WTI) 98.66\$.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13,613	551,484	579,740	657,600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85	5.96	6.21	6.73	—
GRDP 성장률 ²⁾	%	12.6	7.6	7.0	9.2	—
1인당 GRDP	만원	2,664	2,848	2,983	3,370	—
산업구조	—					
농림어업	%	7.6	6.7	6.3	6.7	—
광공업		44.7	45.9	47.0	53.4	—
전기가스수도업		3.9	4.4	2.5	4.8	—
건설업		9.3	8.7	9.3	7.3	—
서비스업 및 기타		34.4	34.5	34.9	27.8	—
15세이상인구	천명	1,517	1,547	1,564	1,588	1,613
경제활동인구	천명	991	1,021	996	991	1,003
취업자	천명	967	998	973	961	974
농림어업	%	23.6	21.9	19.5	18.8	16.8
광공업		15.5	17.0	17.4	17.1	19.0
건설업		5.8	6.6	5.7	5.8	5.6
서비스업 및 기타		55.1	54.5	57.3	58.3	58.5
실업자	천명	24	23	24	29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26	568	597	610
경제활동참가율	%	65.3	66.0	63.7	62.4	62.2
실업률	%	2.4	2.2	2.4	3.0	2.9
고용률	%	63.8	64.5	62.2	60.5	60.4
무역수지	백만달러	16,599	21,149	13,380	20,299	29,161
수출액	백만달러	38,961	47,823	42,936	39,428	54,054
수입액		22,362	26,674	29,556	19,129	24,89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4	4.9	2.7	3.0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¹⁾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²⁾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주 : 1) 당해년가격 2)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8 06	121.0	-0.1	3.3	4.5	101.5	-0.4
07	121.3	0.3	3.1	4.1	101.5	-0.0
08	121.7	0.3	3.0	3.9	101.5	0.0
09	121.9	0.1	2.6	3.4	101.4	-0.1
10	122.4	0.4	2.7	3.3	101.5	0.1
11	122.2	-0.1	2.0	2.8	101.1	-0.4
12	121.0	-1.0	-0.3	1.4	99.8	-1.3
2009 01	119.2	-1.5	-3.3	-0.5	98.0	-1.8
02	117.6	-1.3	-5.5	-2.1	96.4	-1.5
03	116.5	-1.0	-6.9	-3.4	95.2	-1.3
04	116.1	-0.3	-6.9	-4.0	94.6	-0.6
05	116.5	0.4	-5.6	-3.9	94.6	0.1
06	118.2	1.4	-2.5	-2.6	95.7	1.0
07	119.7	1.3	0.3	-1.3	96.6	0.9
08	120.8	0.9	2.1	-0.2	97.2	0.5
09	122.3	1.2	4.6	1.4	98.0	0.9
10	123.6	1.1	6.7	2.9	98.8	0.7
11	124.8	1.0	8.5	4.2	99.4	0.6
12	125.6	0.6	9.3	5.1	99.6	0.3
2010 01	126.5	0.7	10.2	6.0	100.0	0.4
02	127.5	0.8	10.7	6.9	100.4	0.4
03	128.4	0.6	10.7	7.5	100.7	0.3
04	128.9	0.4	9.9	7.9	100.7	0.0
05	129.6	0.5	9.1	8.3	100.8	0.1
06	130.4	0.7	8.7	8.6	101.1	0.3
07	131.2	0.6	8.3	8.7	101.4	0.2
08	131.8	0.4	7.6	8.4	101.4	0.0
09	132.1	0.2	6.6	7.8	101.2	-0.2
10	131.9	-0.1	5.2	6.8	100.7	-0.5
11	131.9	-0.0	4.1	5.8	100.1	-0.4
12	132.8	0.7	4.6	5.7	100.2	0.1
2011 01	134.8	1.5	6.5	6.4	101.3	1.1
02	135.8	0.8	7.0	6.5	101.5	0.1
03	136.1	0.2	6.3	6.0	101.1	-0.4
04	136.1	0.0	5.4	5.4	100.7	-0.4
05	136.9	0.6	5.7	5.6	100.8	0.2
06	138.0	0.8	6.3	5.9	101.2	0.4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는 부록 참조.

시장경기동향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8	57.6	85.8	58.8	84.3	52.9	72.9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0 2/4	66.6	92.6	61.9	92.1	67.0	87.4
3/4	80.6	94.8	79.8	96.1	76.9	89.3
4/4	73.0	95.6	73.8	96.3	70.6	93.3
2011 1/4	54.8	91.9	53.6	90.7	64.3	90.5
2/4	71.8	95.7	67.6	100.0	69.6	93.5
2009 07	69.0	78.6	65.5	69.0	73.8	75.0
08	79.8	78.6	61.9	83.3	67.9	77.4
09	77.4	90.5	77.4	92.9	71.4	84.5
10	76.2	95.2	69.0	86.9	69.0	88.1
11	91.7	86.9	82.1	91.7	82.1	88.1
12	71.4	85.7	61.9	82.1	65.5	79.8
2010 01	52.4	78.6	45.2	76.2	57.1	76.2
02	64.3	97.5	70.2	95.1	66.7	76.9
03	66.7	107.7	59.5	107.7	69.0	87.5
04	71.4	105.1	70.2	105.3	71.4	96.2
05	69.0	94.0	58.3	96.1	70.2	87.2
06	59.5	78.8	57.1	75.0	59.5	78.9
07	66.7	73.8	60.7	76.2	70.0	82.9
08	77.4	85.0	75.0	86.5	73.8	82.5
09	97.6	125.6	103.6	125.6	86.9	102.4
10	66.7	114.3	67.9	121.3	69.0	103.8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	96.7	-	86.5	-	92.4

자료 : 월간 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0 2/4	254,505	5.6	-5.7	188,116	9.1	-3.9
3/4	277,463	11.9	9.0	218,408	17.9	16.1
4/4	293,129	10.0	5.6	194,620	7.8	-10.9
2011 1/4	355,080	31.5	21.1	225,657	15.2	15.9
2/4	350,386	37.7	-1.3	222,696	18.4	-1.3
2009 06	77,042	7.3	-10.2	56,196	9.2	-8.6
07	81,504	6.3	5.8	61,952	7.4	10.2
08	81,952	6.6	0.5	63,234	6.8	2.1
09	84,601	3.5	3.2	60,001	1.3	-5.1
10	87,796	11.4	3.8	58,930	9.1	-1.8
11	85,471	1.2	-2.6	57,330	-0.1	-2.7
12	93,315	8.5	9.2	64,231	6.2	12.0
2010 01	88,900	-1.3	-4.7	63,066	-6.5	-1.8
02	93,492	30.5	5.2	70,492	38.0	11.8
03	87,608	5.2	-6.3	62,254	4.2	-11.7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7	43.1	-3.0	75,025	18.6	-3.8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8 07	755,197	33,578	3,001	515,739	50,472	186,544	2,442
08	756,214	32,444	1,017	516,862	50,459	186,443	2,450
09	757,287	-	1,073	517,914	50,474	186,449	2,450
10	759,840	30,640	2,553	520,191	50,459	186,734	2,456
11	761,629	-	1,789	521,755	50,515	186,892	2,467
12	762,287	29,393	658	522,574	50,504	186,751	2,458
2009 01	765,469	27,740	3,182	525,564	50,562	186,879	2,464
02	767,231	26,776	1,762	527,267	50,542	186,974	2,448
03	769,205	25,176	1,974	529,048	50,529	187,188	2,440
04	771,889	24,665	2,684	531,278	50,660	187,512	2,43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10	116.7	3.0	118.7	3.4	126.8	22.5	116.8	2.9	116.3	3.5	116.6	3.0
2010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4/4	118.2	3.7	120.1	3.9	142.3	43.6	118.3	3.5	117.7	3.9	118.2	3.9
2011 1/4	120.3	4.5	122.6	4.8	142.2	27.9	120.3	4.4	120.1	4.7	120.6	4.8
2/4	121.1	4.1	122.7	3.7	128.7	6.6	121.1	3.9	120.5	3.9	121.4	4.7
2009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10	118.4	4.0	120.7	4.6	150.6	50.0	118.4	3.8	118.1	4.6	118.4	4.2
11	117.7	3.2	119.3	3.4	136.0	42.0	117.8	3.2	117.2	3.4	117.7	3.4
12	118.5	3.7	120.3	3.8	140.2	38.8	118.6	3.5	117.9	3.8	118.4	3.9
2011 01	119.5	4.2	121.6	4.5	140.9	33.2	119.5	4.1	119.2	4.4	119.6	4.4
02	120.6	4.8	123.1	5.2	143.0	29.4	120.6	4.8	120.5	5.1	120.9	5.1
03	120.9	4.7	123.1	4.8	142.8	21.6	120.8	4.6	120.6	4.5	121.3	4.9
04	120.9	4.0	123.0	3.8	136.8	9.6	120.9	4.0	120.3	3.7	121.3	4.7
05	121.0	4.0	122.5	3.4	125.4	2.8	121.0	3.7	120.5	3.9	121.3	4.6
06	121.3	4.4	122.7	4.0	123.8	7.3	121.3	4.2	120.6	4.1	121.5	4.9
07	122.0	4.5	123.5	4.2	136.5	12.7	122.0	4.4	121.4	4.6	122.3	5.1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0 2/4	13,434	44.7	14.7	6,204	43.2	8.0	7,230
3/4	14,633	32.5	8.9	6,360	26.4	2.5	8,273
4/4	14,273	20.7	-2.5	6,583	18.4	3.5	7,690
2011 1/4	13,819	18.0	-3.2	7,563	31.6	14.9	6,256
2/4	14,883	10.8	7.7	8,583	38.3	13.5	6,300
2009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2	47.7	-8.9	1,849
02	3,651	53.1	-0.3	1,891	25.6	4.4	1,760
03	4,402	51.4	20.6	2,043	38.8	8.0	2,359
04	4,358	44.6	-1.0	1,913	39.4	-6.4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3	40.9	2.5	2,363	41.6	22.6	2,230
07	4,898	41.0	6.6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8	2,071	25.2	0.3	2,864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35	39.9	5.4	2,198
02	4,217	15.5	-10.9	2,211	16.9	-12.8	2,006
03	4,868	10.6	15.4	2,816	37.9	27.4	2,052
04	4,905	12.6	0.8	2,672	39.7	-5.1	2,233
05	5,021	12.2	2.4	2,781	44.3	4.1	2,240
06	4,957	7.9	-1.3	3,130	32.5	12.5	1,827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10	1,613	1,003	974	29	610	2.9	60.4
2010 2/4	1,610	1,028	1,004	24	582	2.4	62.3
3/4	1,616	1,036	1,006	29	581	2.8	62.3
4/4	1,623	1,007	981	26	615	2.6	60.4
2011 1/4	1,630	963	935	29	667	3.0	57.4
2/4	1,637	1,061	1,040	21	577	1.9	63.5
2009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580	3.2	62.1
10	1,620	1,033	1,005	28	587	2.7	62.0
11	1,622	1,020	995	25	602	2.4	61.3
12	1,625	968	942	26	657	2.6	58.0
2011 01	1,627	923	899	24	705	2.6	55.2
02	1,630	955	924	31	675	3.3	56.7
03	1,632	1,012	982	30	620	3.0	60.2
04	1,635	1,042	1,017	25	593	2.4	62.2
05	1,638	1,064	1,046	18	574	1.7	63.9
06	1,640	1,076	1,057	19	564	1.7	64.5

자료 : 충청지역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08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19	0.33	0.20	0.02	0.05
2010 2/4	0.18	0.20	0.35	0.21	0.04	0.07
3/4	0.20	0.25	0.54	0.02	0.12	0.03
4/4	0.14	0.14	0.18	0.41	0.04	0.06
2011 1/4	0.41	0.55	0.69	0.09	0.16	0.00
2/4	0.11	0.21	0.05	0.02	0.04	0.00
2009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10	210,392	-22.1	6,636,749	-7.9	6,347,493	19.7	141,946	-25.3
2010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048	9.9	34,666	-23.2
4/4	73,578	28.5	1,693,669	8.0	1,742,905	-8.5	29,129	-30.8
2011 1/4	44,502	-2.4	1,428,130	2.1	1,314,241	-8.4	25,309	-36.8
2/4	58,090	16.8	1,987,829	-5.2	2,080,921	9.3	22,308	-41.5
200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10	19,172	23.3	400,493	-8.9	464,780	-3.0	10,285	-5.2
11	21,637	18.6	812,945	64.2	666,098	34.5	9,824	-4.5
12	32,769	39.7	480,231	-28.6	591,027	24.4	9,020	-8.2
2011 01	14,265	-3.5	414,632	3.7	255,721	-2.1	8,750	-37.3
02	12,164	-28.12	403,350	-12.7	358,003	-12.7	8,477	-35.7
03	18,073	-11.28	610,148	13.4	700,517	-0.2	8,082	-37.4
04	20,501	-11.29	593,974	-6.9	724,923	33.7	7,620	-41.3
05	18,041	11.01	723,947	22.4	700,162	14.9	7,459	-40.9
06	19,548	2.6	669,908	-22.7	655,836	-12.8	7,229	-42.2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07	95.5	0.6	0.3	92.2	100.7	94.8	88.4	2.4	0.3	84.9	92.3	91.2
08	95.7	0.7	0.2	92.5	100.5	96.2	89.0	2.8	0.6	85.3	92.8	92.6
09	96.5	1.1	0.8	93.5	100.7	96.6	89.8	3.4	0.9	86.6	92.8	93.1
10	96.6	1.2	0.2	93.8	100.7	96.6	90.2	3.4	0.5	87.3	92.8	93.1
11	96.6	1.3	0.0	93.8	100.5	96.5	90.4	3.5	0.2	87.6	92.8	93.1
12	96.4	1.1	-0.2	93.6	100.3	96.9	90.2	3.3	-0.2	87.3	92.8	93.1
2009 01	96.0	0.9	-0.3	93.2	100.0	97.0	89.9	3.0	-0.4	86.7	92.8	93.3
02	95.8	0.9	-0.2	92.9	100.0	97.0	89.5	2.8	-0.4	86.3	92.6	93.3
03	95.7	0.7	-0.2	92.6	99.8	97.0	89.4	2.5	-0.1	86.0	92.8	93.3
04	95.6	0.8	0.0	92.5	99.9	97.4	89.2	2.0	-0.2	86.0	92.2	93.3
05	95.5	0.6	-0.1	92.5	99.5	97.4	89.3	1.8	0.0	86.1	92.2	93.3
06	95.5	0.2	0.0	92.3	99.5	97.4	89.2	1.1	-0.1	86.0	92.0	93.3
07	95.4	-0.1	0.0	92.3	99.5	97.4	89.4	1.0	0.2	86.1	92.3	93.4
08	95.4	-0.3	0.0	92.4	99.1	97.4	89.4	0.5	0.1	86.2	92.3	93.4
09	95.7	-0.8	0.3	92.7	99.4	98.1	89.9	0.1	0.6	86.4	93.0	94.0
10	96.2	-0.5	0.5	93.0	100.0	98.3	90.2	0.0	0.3	86.7	92.9	96.3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51-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2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8 06	762.0	0.5	157.1	1.1	125.2	0.2
07	764.0	0.3	157.3	0.1	125.8	0.5
08	768.0	0.5	158.2	0.5	126.7	0.7
09	766.3	-0.2	159.0	0.5	126.9	0.1
10	770.4	0.5	160.3	0.8	128.0	0.9
11	770.9	0.1	157.6	-1.7	131.4	2.6
12	770.6	-0.0	150.7	-4.4	131.3	-0.0
2009 01	761.3	-1.2	146.4	-2.9	131.9	0.4
02	753.9	-1.0	144.1	-1.5	125.8	-4.7
03	742.4	-1.5	144.1	-0.0	126.4	0.5
04	741.6	-0.1	145.3	0.8	125.2	-1.0
05	742.8	0.2	150.5	3.6	129.5	3.5
06	747.2	0.6	161.1	7.0	130.1	0.4
07	744.3	-0.4	171.9	6.7	131.1	0.8
08	744.5	0.0	181.0	5.3	130.9	-0.2
09	750.5	0.8	189.1	4.5	131.3	0.3
10	755.2	0.6	194.8	3.0	133.1	1.4
11	756.0	0.1	198.7	2.0	135.7	2.0
12	750.3	-0.8	202.3	1.9	138.4	2.0
2010 01	750.1	-0.0	205.0	1.3	139.4	0.7
02	752.0	0.3	206.7	0.8	141.1	1.2
03	756.6	0.6	208.4	0.8	140.0	-0.8
04	760.4	0.5	209.8	0.6	137.8	-1.6
05	762.6	0.3	212.4	1.3	135.4	-1.7
06	764.0	0.2	215.1	1.2	135.4	-0.0
07	765.2	0.2	216.8	0.8	137.9	1.9
08	764.8	-0.0	220.0	1.5	137.4	-0.4
09	762.1	-0.4	222.0	0.9	137.2	-0.2
10	755.6	-0.9	225.1	1.4	133.7	-2.5
11	753.5	-0.3	227.0	0.8	130.2	-2.6
12	755.2	0.2	226.8	-0.1	143.9	10.5
2011 01	760.2	0.7	228.6	0.8	164.4	14.2
02	767.9	1.0	229.5	0.4	174.6	6.2
03	771.7	0.5	228.9	-0.3	170.3	-2.5
04	773.9	0.3	228.9	0.0	162.7	-4.4
05	772.1	-0.2	231.5	1.1	169.0	3.8
06	774.3	0.3	235.4	1.7	174.2	3.1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8 06	2,525,409.2	0.5	3,597,446.0	-4.8	1,798,024.1	-3.1
07	2,544,271.8	0.7	3,534,855.4	-1.7	1,832,928.0	1.9
08	2,557,306.4	0.5	3,523,067.1	-0.3	1,832,424.7	-0.0
09	2,563,006.5	0.2	3,548,282.2	0.7	1,853,122.2	1.1
10	2,592,296.4	1.1	3,555,437.1	0.2	1,827,589.8	-1.4
11	2,586,037.0	-0.2	3,473,114.5	-2.3	1,841,902.1	0.8
12	2,553,407.0	-1.3	3,329,302.3	-4.1	1,827,831.6	-0.8
2009 01	2,537,137.4	-0.6	3,221,711.2	-3.2	1,688,079.5	-7.6
02	2,519,331.4	-0.7	3,104,932.5	-3.6	1,637,244.5	-3.0
03	2,505,141.8	-0.6	3,067,990.9	-1.2	1,547,558.1	-5.5
04	2,496,701.1	-0.3	3,077,398.4	0.3	1,480,643.4	-4.3
05	2,503,787.1	0.3	3,174,479.2	3.2	1,382,016.5	-6.7
06	2,549,210.5	1.8	3,366,406.4	6.0	1,356,663.9	-1.8
07	2,580,218.7	1.2	3,540,948.7	5.2	1,393,389.0	2.7
08	2,614,830.8	1.3	3,637,950.0	2.7	1,388,263.4	-0.4
09	2,656,591.7	1.6	3,713,543.7	2.1	1,414,917.2	1.9
10	2,696,393.7	1.5	3,788,025.5	2.0	1,445,091.1	2.1
11	2,749,918.8	2.0	3,888,837.2	2.7	1,485,408.1	2.8
12	2,803,504.0	1.9	4,012,875.2	3.2	1,507,421.8	1.5
2010 01	2,876,230.9	2.6	4,123,066.3	2.7	1,521,423.1	0.9
02	2,942,057.0	2.3	4,251,081.9	3.1	1,541,219.6	1.3
03	3,002,336.8	2.0	4,350,304.5	2.3	1,545,496.1	0.3
04	3,053,350.5	1.7	4,444,675.7	2.2	1,538,515.2	-0.5
05	3,102,286.7	1.6	4,559,333.1	2.6	1,546,980.5	0.6
06	3,142,582.9	1.3	4,646,511.6	1.9	1,590,161.8	2.8
07	3,165,124.5	0.7	4,752,875.8	2.3	1,620,703.0	1.9
08	3,197,543.0	1.0	4,825,096.9	1.5	1,631,801.1	0.7
09	3,230,304.1	1.0	4,870,082.1	0.9	1,646,806.1	0.9
10	3,262,241.5	1.0	4,884,486.6	0.3	1,654,152.0	0.4
11	3,288,050.9	0.8	4,859,316.4	-0.5	1,665,738.8	0.7
12	3,326,737.3	1.2	4,849,763.8	-0.2	1,637,603.9	-1.7
2011 01	3,378,911.3	1.6	4,895,456.4	1.0	1,657,597.6	1.2
02	3,410,428.5	0.9	4,883,305.4	-0.3	1,637,780.8	-1.2
03	3,444,055.8	1.0	4,861,682.9	-0.4	1,660,000.1	1.4
04	3,466,752.9	0.7	4,866,684.1	0.1	1,687,765.3	1.7
05	3,505,920.8	1.1	4,886,305.4	0.4	1,723,237.4	2.1
06	3,537,125.2	0.9	4,865,628.2	-0.4	1,773,214.0	2.9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변수명	자 료 명	단 위	자료기간	작성기관	자료출처
CN1	비농가취업자수	천명	90.1월~	통계청 사회통계과	KOSIS
CN2	산업생산지수	2005=100	90.1월~	통계청 산업동향과	KOSIS
CN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005=100	97.1월~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KOSIS
CN4	전력소비량	1,000kwh	90.1월~	한국전력 충남지사	한국전력공사
CN5	수출액/수출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CN6	수입액/수입물가지수	천불	92.1월~	무역협회/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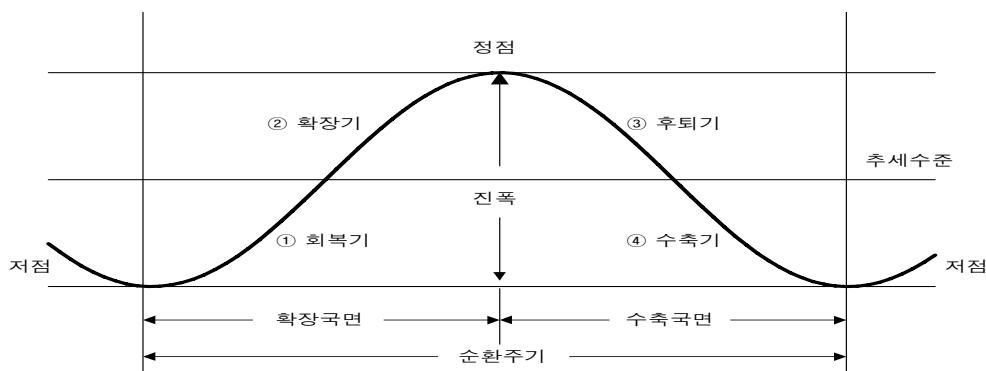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 · 동행 · 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경기 순환과정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률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㉑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㉒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 (구성지표), $t = 2, 3, \dots, T$ (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률($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 (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률($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률(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률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률(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충청남도 경제지원정책

2011년 제2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 **참가자격**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충남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신청기간** : 2011. 7. 25 ~ 8. 8,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 **지원규모** : 일반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전문인력 인건비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문의(042-251-2668)

충남 사회적 기업 공동브랜드 공모

- **목 적** :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 간** : 2011. 7. 27 ~ 8. 25, 인터넷(E-mail) 접수(jskim@cdi.re.kr)
- **상금액** : 총 1,600,000원(당선작 70만원, 가작 30만원, 장려상 10만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발전연구원으로 문의(041-840-1211)

추석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목 적** : 체불임금 등 자금난 해소
- **지원한도** : 일반기업 3억원, 수출기업·선도기업·녹색인증기업 5억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중금리(2.0% 이자 지원)
- **신 청** : 2011. 8. 16 ~ 8. 25,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기업지원과로 문의(042-220-3224)

2011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 **기 간** : 2011. 12. 6 ~ 12. 8
- **장 소** : 부여 롯데리조트 사비홀
- **해외 바이어** :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약 10개국 40명 내외
- **신청자격**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 제조업체
- **지원사항** : 참가비 및 통역비
- **신 청** : 2011. 8. 1 ~ 8. 19,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173)

2011년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참여 희망업체 모집

- **대 상**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 수출·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 미만인 기업
 - **규 모** : 80업체(상반기 37, 하반기 43 내외)
 - **기 간** :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 현지 시장성 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 Follow-up, 현지 출장시 상담 주선 등 제반활동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 **지원사항** : 업체당 2개 KBC(1지역당 도 지원금액 60% 지원)
 - **신 청** : 충남도청 홈페이지 및 KOTRA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신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충남도청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173)

2011년 뿌리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접수기간** : 2011. 8. 8 ~ 8. 22
 - **사업기간** : 2011. 9. 1 ~ 11. 25(3개월)
 - **대 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뿌리업종으로 등록되고,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지원내용** : 50백만원(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재료, 설계, 정밀측정, 시뮬레이션,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등
 - **신 청** : 우편·이메일, 방문접수,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제품성능기술과로 문의(042-865-6136)

2011년 기술인프라 활용 촉진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1. 9. 1 ~ 11. 30 (3개월)
 - **지원규모** : 234,000천원(충남테크노파크 100%, 참여기관 20%)
 - **지원내용**
 - 장비 고도화 : 3~6천만원, 장비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 장비 공동이용 지원 : 3~5천만원, 장비 이용 수수료
 - 현장애로기술 개발 : 7천 5백~1억 1천 4백만원,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장비활용 인력양성 : 1천만원, 지역산업체의 장비 활용 전문인력 양성
 - **신 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충남테크노파크, 천안시 직산을 삼은리)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기술사업화팀으로 문의(041-589-0636)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월호

2010년 충청남도 산업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충청남도 권희태

2010년 경제전망 산업연구원 강두용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청남도 조한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0. 2월호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한남대학교 정상은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충청남도 이재관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2010. 3월호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대전지방노동청 고복현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0. 4월호

3D 홀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디지털타임즈 이근형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경희대학교 장진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전기차

충남테크노파크 이덕규

2010. 5월호

문화산업, 감성형 융합콘텐츠 시대로의 이행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기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령왕의 재발견

공주대학교 정재윤

백제금동대향로의 부활 "서기행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동연

2010. 6월호

충남 산업의 고품질 유희유, 디자인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브랜드 전략방안

그린나라 조용진

국가 디자인 정책과 주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영선

2010. 7월호

충남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1년 365일, 축제 한마당

건양대학교 지진호

충남 생태관광의 지향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2010. 8월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정상은

최근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0. 9월호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 김양중 · 송두범
DTI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0월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전자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4월호

일본 지진 피해로 인한 Display산업의 영향 분석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정운성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이재현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정통 유러피안 프리미엄햄 - 본센
정통 유러피안 프리미엄햄의 맛을 추구하는
'본센'은 알프스산(알프스산)에서 자란
있게 손보이는 고품질 햄 브랜드입니다.
'본센'은 jambon(햄) + delicatessen의
합성어로, 원자 본색의 맛과 함께 기분을
자르는 햄이 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다양한 맛!

맛있는 본센모듬소시지!!



본센모듬소시지 II

본센모듬소시지 I

충남 서천군 중천면 석촌리 416-29번지
고객센터 : 041) 953-6634
Fax. 041) 953-8232



알프스식품(주)
www.alpsfood.co.kr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2008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

주최 충청남도 · 금산군 주관 |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Ginseng,
Root of Life

2011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09.02
— 10.03

충남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